

# 한국 YWCA

2023년 1·2월호  
JAN·FEB Vol.582



## 특집 2023년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2023 정기총회 스케치  
회원YWCA정기총회 현장

### 이슈포커스

남녀동등참여 정치관계법 개정

### 탈핵기후생명

탈석탄법- 무엇이 중요하지 묻는다

### 평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

###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다음 소회> 다음을 위해 응답할 책임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안동	054.854.5481
거제	055.682.4950	(사)안산	031.483.6536
(사)고양	031.919.4040	(사)안양과천군포의왕	031.455.2700
광명	02.895.1966	(사)양산	055.367.1144
광양	061.762.0012	(사)여수	061.654.2161
(사)광주	062.609.1300	(사)울산	052.247.3520
군산	063.462.4491	원주	033.742.6090
김해	055.332.6000	의정부	031.853.6332
남양주	031.577.7762	익산	063.857.8910
남원	063.632.7002	(사)인천	032.424.0524
(사)논산	041.736.7393	(사)전주	063.224.5501
(사)대구	053.652.0070	(사)제주	064.711.8322
(사)대전	042.254.3035	제천	043.645.2580
동해	033.531.3007	진주	055.755.3463
마산	055.246.8746	(사)진해	055.542.0020
(사)목포	061.242.1611	(사)창원	055.283.9488
(사)부산	051.441.2221	천안	041.575.0961
부천	032.668.9700	(사)청주	043.265.3700
사천	055.833.2344	춘천	033.254.4878
(사)서귀포	064.762.1400	충주	043.848.3240
(사)서울	02.3705.6000	(사)통영	055.646.2547
서천	041.951.6400	파주	031.945.5998
성남	031.708.2503	평택	031.651.7701
(사)세종	044.865.2432	포항	054.274.4444
속초	033.635.3523	하남	031.793.7771
(사)수원	031.252.5111		
(사)순천	061.744.7990		





# 한국YWCA 창립 100주년 비전문

새로운 100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지켜온 YWCA 목적과 운동방식을 성찰하고, 창립 정신과 정체성을 재정의하여, 정의·평화·생명의 세상 건설을 위한 기독교민운동의 주체로서 다시 담대히 일어서고자 한다.

## Y 수평, 깨어있음, 변화, 극복

우리는 청년이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며 깨어있는 시대의식으로 연대한다.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펼치고 존중받는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나이, 배경, 경력의 위계에서 자유로우며 수평적인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건설한다.

## W 여성리더십, 성평등, 차별배제, 다양성

우리는 여성이다. 고정관념과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간다.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천한다.  
차별과 배제에 맞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외와 갈등을 깨고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상호이해와 공존의 문화, 성평등한 사회를 이룬다.

## C 기후정의, 생명, 돌봄, 살림, 평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존재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돌본다.  
창조질서의 회복과 기후 정의를 이루는 생활과 제도를 만들고 생명살림을 실천한다.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소외된 이웃과 다음세대의 도움 요청에 적극 응답하고 사회의 구성원과 대화하며 포용한다.  
갈등과 분단, 전쟁과 폭력을 그치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담대히 전진하며 사회적 영성과 평화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간다.

## A 연대, 주체성, 지역성

우리는 회원공동체다. YWCA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변화를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우리의 현장은 지역이다.  
기독교민운동단체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 자치성을 강화하고 회원이 주체가 되어 지역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한다.  
시대의 변화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 비영리공익법인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난다.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운동을 확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기꺼이 담당한다.  
YWCA 회원들이 지역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어 YWCA의 비전이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소통한다.

1922 · 2022



# 2023. 1·2 한국YWCA



### 표지이야기

4년 만에 대면으로 (사)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회원YWCA대표와 연합회 직무상대표 총 130여 명의 총회원이 2023년 한국YWCA사업과 예산안을 승인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해 '가볍고 힘있게' 달리기를 준비했다.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정의·평화·생명운동을 힘차게 펼치게 될 연합회 총회원들의 모습.

### 2023년 3·4월 주요일정

- 3월 2일 월례 아침 기도회
- 3월 4일 3.8여성의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 3월 8일 2023 YWCA 신입사무총장 교육
- 3월 8일 YWCA 금융 경제 강사교육
- 3월 9일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전국 탈핵 행동의날
- 3월 11일 후쿠시마 12주기 탈핵행진
- 3월 16일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 3월 23일 Y-틴 실무활동가 워크숍
- 3월 30일 2023 YWCA 신입이사 교육
- 4월 6일 키다리학교 워크숍
- 4월 11일 씽크머니 협약식
- 4월 20일 창립기념일
- 4월 25일 2023 YWCA 전국회장단 연수

### 제59권 제1호 통권 582호

2023년 2월 28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인 구정혜  
편집 최수신나 이주영 이현주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 5천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자! | 원영희
- 05 **사무총장 인사말** 2023년, 꾸준히 또 힘있게 나아가는 한국YWCA | 구정혜
- 특집 2023년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 06 2023 정기총회 스케치
- 08 회원YWCA 신임회장단 권역협의회 대표, 신입사무총장
- 12 회원YWCA 정기총회 현장
- 16 제2회 이행자리더십 어워드 수상자
- 17 **이슈포커스** 남녀동등참여 정치관계법 개정 | 김은경
- 20 **탈핵기후생명** 탈석탄법, 무엇이 중요한지 묻는다 | 황인철
- 22 **평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 | 이태호
- 24 **청년토크** 2023년 교회청년의 현주소 | 대학·청년YWCA
- 26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다음을 위해 응답할 책임> | 이윤숙
- 28 **이달의 현장 ①** 2023 Y-틴 전국협의회
- 30 **이달의 현장 ②** 대학·청년YWCA협의회 | 조은지
- 32 **이달의 현장 ③** 2022 키다리학교 활동 나눔 | 이은혜
- 34 **이달의 현장 ④** 지역RE100 탈석탄법 제정 운동 | 유에스더
- 37 **이달의 현장 ⑤** 2023 YWCA 신임회장교육 | 이수진
- 38 **이달의 현장 ⑥**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서울역 캠페인
- 40 **YWCA 변화와 혁신12** YWCA 재구조화 성과와 미완의 과제들 | 박동순
- 43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 44 **기자회견문**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 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
- 45 **성명서** 핵발전소를 멈추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46 **연합회 소식**
- 50 **연합회 인사 동정·모금현황**
- 51 **회원YWCA 소식**

#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자!



**원영희**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4년 여 만에 대면으로 열린 2023년 사단법인 한국YWCA 연합회 총회 사무회의 사이에 청년법인이사들이 <95개 논제> 중에 청년성 관련 논제를 낭독했다. 세 청년 이사들은 한 목소리로 “젊은 여성들이 하나됨을 창조와 역사의 주인으로 믿으며...” 논제 21번에 담긴 한국YWCA 목적문을 당당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읽을 때, 든든하면서도 마음이 뭉클했다. 우리에게 아직 청년성을 살리려는 노력과 역할 나눔과 희생과 헌신이 더 많이, 더 절실히, 더 세심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총회 개최예배 설교를 해주신 이상학 목사(새문안교회)도 공동체 속에 청년성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다행히도 한국YWCA는 청년성을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2023년 계획 속에 포함했다. 전체 장학기금의 절반을 청소년Y를 위해 운영하기로 하면서 “지역운동체로서의 회원YWCA 책무성 제고를 위한 재구조화 지원”으로 또다시 바쁜 한 해를 시작했다. 청년법인이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우리Y RE100> YWCA 청소년 기후행동 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 주체로서 청소년 운동가를 발굴하기로 하며, 키다리학교와 드림십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또한 ‘지역청년운동 활성화’를 위해 청년 네트워킹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청년운동으로 지역재생/도시재생 프로그램 개발 균산 로컬프랜들리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YWCA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 ‘홍청망청-세상을 살리는 100개 프로젝트’ 공모도 진행한다. 세상은 중앙으로 대도시로 몰려오지만, 우리YWCA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본받아 지역으로 청년들을 인도하며 다시 희망

을 나누기로 했다.

지난 해, 백주년을 맞는 해 회장으로 “YWCA는 우리사회에서 창립 100년 이후에도 깨어있는 청년성을 지닌 기독교 여성시민운동체”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잠자고 있던 청년성을 깨우는 과제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도 필요하지만, Y공동체 내에서, 연합회와 모든 지역에서 ‘절실한’ 과제로 공유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연합회 사무총장과 함께 전국 52개 회원YWCA를 직접 찾아가 ‘지역 청년들을 만나기 위한’ 사명도 포함한 기도순례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의 현실은 자원, 실무활동가를 통틀어 청년이 정말 귀했다. 아니 희귀했다. 바라건대 올해는 청년성을 살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52개 Y가 더욱 담대해지기 바란다. 당장 떨어지는 일에 밀려가다보면 올해도 청년성을 살리는 사역은 또 뒤로 밀리게 되니, 모든 회원Y들이 예산 배정부부터 청년성 살리기에 좀 더 노력한다면 좋겠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 개발은 조직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직결된다. 청년, 청소년 사역에 투자는 당연히 조직의 책무(accountability)이다. 청년 여성들이 100년 전 시작한 기독교여성시민단체이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지역에서 Y(Young)운동, 청년운동의 지경을 넓혀가길 기도한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들. 이제 청년들과 함께 다가자. 진정 YWCA의 미래를 걱정하는가? 익숙하지 못해 느리더라도 청년들과 함께 에둘러 천천히 가자. 때가 되면 분명 청년들은 유쾌하게 달리고 어른세대인 우리들의 얼굴엔 감사의 미소가 피어오르지 않을까?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자! 

# 2023년, 꾸준하게 또 힘있게 나아가는 한국YWCA



**구정혜**  
(사)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한국YWCA연합회는 2월 23일 정기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2023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한국YWCA 운동의 새로운 전개 방식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날로 강화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시민단체에 보다 높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YWCA 전체의 법인행정 역량과 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한국YWCA 중점운동과 대척점을 이루는 현 정부의 정책조속에서도 100년의 역사를 가진 시민단체로서 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국 회원YWCA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YWCA 100주년에 선포된 YWCA 새로운 비전을 정책 및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2023년이 재구조화 완료 시한이므로 그에 수반되는 회원YWCA 정책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재구조화 이후 회원YWCA가 한국YWCA연합회 회원단체로서 소통 및 연대를 강화하도록 촉진하는 연합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회원수 감소, 특히 청(소)년회원 감소 등 YWCA 운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참여의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가볍고 힘있게” 달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재구조화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여 기독교여성시민운동단체로서 정의, 평화, 생명의 세상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달리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연합회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올해 4년째인 회원YWCA 재구조화 지원을 마무리하면서 아울러 공익법인 제

도 개선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합니다. 성인지 관점에서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전개하는 한국YWCA RE100 운동, 청소년기후행동, 탈핵기후생명캠페인 등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가며,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여가부페지 저지운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운동, 크리스천페미니즘아카데미 등 성평등운동, 정전70주년 기념 평화포럼, 한반도중전평화캠페인, 미얀마, 우크라이나의 여성과 아동을 돕기 위한 국제연대활동도 등도 지속합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직 지원, 지역형 청년리더양성(Y-로컬크리에이터)과 홍청망청프로젝트 등 지역청년운동 모델 개발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4년마다 열리는 YWCA 세계대회가 개최되므로 세계의 Y자매들과 한국YWCA의 평화운동, 성평등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연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한일YWCA협의회도 한국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책임있게, 더 소신있게 여성과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펼칠 뿐 아니라 사회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나가겠습니다.

독자적 법인으로 주체적인 활동의 기반을 갖춘 회원YWCA들이 지역에서 각자 특색있는 운동을 펼쳐나가며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2023년의 한국YWCA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시편 37:3-6)” 

# 2023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열어

## | 글·편집실

### 전국 52개 회원YWCA대표와 연합회 직무상 대표 참석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2월 23일(목) 오전 11시 새문안교회에서 2023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52개 회원YWCA 대표와 연합회 직무상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예배를 드렸다. 2023년 정기총회는 사무회의에서 2022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의 건, 회원YWCA 분담금 정책을 결정하고, 회원YWCA 관련 규정 개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와 아울러 2022-2023년 운동정책에 따라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RE100)을 전국중점운동으로 확산하고 회원YWCA 지역운동 기반구축에 지원할 것을 올해 사업 계획으로 발표했다.

특히 이번 총회는 2020년 연초부터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병 영향으로 3년간 비대면총회로 진행한 가운데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에 대면총회로 모이게 되었다.

올초 회원YWCA 총회를 거쳐 회장으로 선출되어 연합회 총회원이 된 23명의 회원YWCA 신입회장들은 연합회에서 진행된 1박 2일의 신입회장 교육을 마치고 이른 시간에 총회장에 도착했다. 개회예배에서 부를 특별찬송 리허설을 준비하는가 하면 거제, 광주, 부산, 여수YWCA 등 새벽부터 총회를 위해 나선 총회원들이 속속 도착하여 인증샷을 찍으며 서로 만남의 기쁨을 나누었다.

개회예배에서는 연합회 원영희 회장의 인도로 이종임 이사장(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의 기도, 회원YWCA 신입회장들의 특별 찬양, 김민선 Y-틴 전국협의회회장의 말씀

봉독에 이어 새문안교회 이상학 담임목사가 ‘생명을 잉태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이상학 목사는 설교에서 ‘생명위기시대에 한국YWCA가 기독교여성시민사회단체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용기와 도전을 주었다. 새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와 열정과 헌신으로 시작된 한국기독교 13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교회이다.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다시금 깨달은 총회원들은 예배 후 기념 사진을 찍었다. 방역해제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밝은 얼굴들이 이어질 식사 시간의 친교와 사무처리의 긴장감과 함께 어우러졌다.

### 2022년 사업과 결산보고,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1시 30분부터 진행된 사무회의에서는 회원YWCA 분담금 정책을 결정하고, 회원YWCA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연합회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개회사에서 원영희 회장은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연합회는 52개 지역 YWCA와 함께 2023년 한 해 새로운 정책과 규정, 운동과 사업을 통해 책임있는 시민운동단체로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며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개회사에 이어 서기지명, 전 회의록 통과보고 후 연합회 정기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회원YWCA 신입회장 23명과 신입사무총장 10명의 소개 시간을 가졌다. 권역대표와 Y-틴 전국협의회 회장,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회장이 소개됐다.




### 제2회 이행자리더십 어워즈, 김선옥 이유림 직전회장 수상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해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100주년을 맞은 광주YWCA의 김선옥 직전회장과 서울YWCA의 이유림 직전회장이 제2회 이행자리더십 어워즈 수상자로 선정되어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행자리더십 어워즈는 한국YWCA의 목적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동 연합회와 회원YWCA의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상으로 이행자 리더

십기금으로 운영된다.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에 참가한 총회원들은 52개 지역의 YWCA와 함께 이번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새로운 정책과 규정, 운동과 사업을 통해 책임 있는 시민운동단체로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며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 2023 회원YWCA 신임회장

<b>강릉YWCA</b>  <b>전배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4~2022 강릉YWCA 이사</li> <li>• 2011~2012 강릉YWCA 회장</li> <li>• 2012 YWCA 북부지역위원장</li> <li>• 2014~2017 한국YWCA 실행위원</li> <li>• 2019~2022 한국YWCA 협력위원</li> <li>• 2023~현 강릉YWCA 회장</li> </ul>	<b>(사)고양YWCA</b>  <b>김혜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2006 고양YWCA 청소년부 위원</li> <li>• 2007, 2013 고양YWCA 이사</li> <li>• 2013~2018 고양YWCA 창의교육부, 살림운영부, 중점운동부 위원</li> <li>• 2019~2022 고양YWCA 인권부 위원장</li> <li>• 2023~현 (사)고양YWCA 회장</li> </ul>
<b>광명YWCA</b>  <b>곽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1995 광명YWCA 이사</li> <li>• 1995~2002 광명YWCA 사무총장</li> <li>• 2020~2022 광명YWCA 부회장</li> <li>• 2023~현 광명YWCA 회장</li> </ul>	<b>(사)광주YWCA</b>  <b>노은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2017 광주YWCA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li> <li>• 2018 광주YWCA 이사, 기획부위원장</li> <li>• 2019~2020 광주YWCA 제2서기이사, 사회문제 및 소비자위원회 위원장</li> <li>• 2021~2022 (사)광주YWCA 제1부회장, 시민사회운동부 위원장</li> <li>• 2023~현 (사)광주YWCA 회장</li> </ul>
<b>군산YWCA</b>  <b>우원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2019 한국YWCA연합회 군산직할지부 운영위원</li> <li>• 2019~2022 군산YWCA 제1부회장</li> <li>• 2023~현 군산YWCA 회장</li> </ul>	<b>동해YWCA</b>  <b>김근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1992 동해YWCA 회원관리위원회 위원, 총무</li> <li>• 1992~2022 동해YWCA 이사</li> <li>• 2023~현 동해YWCA 회장</li> </ul>
<b>(사)목포YWCA</b>  <b>강경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2011 목포YWCA 사회문제위원회 위원장</li> <li>• 2002~2013 목포YWCA 서기이사</li> <li>• 2002~2009, 2015~2017 목포YWCA 홍보출판위원회 위원장</li> <li>• 2011~2013 목포YWCA 청소년위원회 위원장</li> <li>• 2017~2019 목포YWCA 희망지원센터위원회 위원장</li> <li>• 2019~2020 목포YWCA 공천위원회 위원장</li> <li>• 2019~2021 목포YWCA 재정 및 건물관리위원회 위원장</li> <li>• 2021~2022 목포YWCA 인사 및 지도력양성 위원회 위원장</li> <li>• 2019~2022 목포YWCA 제1,2 부회장</li> <li>• 2023~현 (사)목포YWCA 회장</li> </ul>	<b>부천YWCA</b>  <b>박행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2022 부천YWCA 소비자물가모니터 회원</li> <li>• 2014~2022 부천YWCA 이사</li> <li>• 2023~현 부천YWCA 회장</li> </ul>
<b>사천YWCA</b>  <b>구영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2022 사천YWCA 이사</li> <li>• 2017 사천YWCA 교육위원회 위원장</li> <li>• 2018 사천YWCA 공천위원회 위원장</li> <li>• 2019 사천YWCA 재정위원회 위원장</li> <li>• 2017~2022 사천YWCA 제1,2부회장</li> <li>• 2023~현 사천YWCA 회장</li> </ul>	<b>(사)서울YWCA</b>  <b>조연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2018 서울YWCA 시설운영사업팀 부위원장</li> <li>• 2018~2021 서울YWCA 영등포지부 위원장</li> <li>• 2019~2021 서울YWCA 제2서기이사</li> <li>• 2021~2022 (사)서울YWCA 모금개발부 위원장</li> <li>• 2021~2022 (사)서울YWCA 창립100주년 모금분과, 재정부 위원장</li> <li>• 2023~현 (사)서울YWCA 회장</li> </ul>

## 2023 회원YWCA 신임회장

<b>(사)세종YWCA</b>  <b>김인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2006 세종YWCA 이사</li> <li>• 2007~2022 세종YWCA 부회장</li> <li>• 2008~2022 세종YWCA 인사위원회 위원장</li> <li>• 2019~2022 세종YWCA 세종시가족센터운영위원장</li> <li>• 2020~2021 세종YWCA 법인재구조화 운영위원회 위원장</li> <li>• 2023~현 (사)세종YWCA 회장</li> </ul>	<b>안동YWCA</b>  <b>임귀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2022 안동YWCA 이사</li> <li>• 2019~2020 안동YWCA 제1서기이사</li> <li>• 2021~2022 안동YWCA 제1부회장</li> <li>• 2023~현 안동YWCA 회장</li> </ul>
<b>(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b>  <b>박혜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2013 안양YWCA 회계이사</li> <li>• 2013~2015 안양YWCA 서기이사</li> <li>• 2015~2019 안양YWCA 중점운동위원회 위원장</li> <li>• 2020~2022 안양YWCA 회원운동위원회 위원장, 부회장</li> <li>• 2023~현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회장</li> </ul>	<b>의정부YWCA</b>  <b>신선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2018 의정부YWCA 청소년부 강사</li> <li>• 2015~2022 의정부YWCA 청소년부 감시단장, 위원장</li> <li>• 2010~2022 의정부YWCA 이사</li> <li>• 2023~현 의정부YWCA 회장</li> </ul>
<b>익산YWCA</b>  <b>이진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2018 익산YWCA 교육위원회 위원장</li> <li>• 2018~2019 익산YWCA 공천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li> <li>• 2019~2020 익산YWCA 제2부회장, 사회개발위원회 위원장, 공천위원장</li> <li>• 2020~2021 익산YWCA 제2부회장, 재정위원장, 회원위원회 위원장</li> <li>• 2021~2022 익산YWCA 제1부회장, 인사지도력양성위원회 위원장, 청소년 대학위원회 위원장,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li> <li>• 2023~현 익산YWCA 회장</li> </ul>	<b>(사)인천YWCA</b>  <b>권미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2022 인천YWCA 이사</li> <li>• 2017~2020 인천YWCA 사업위원회 위원장</li> <li>• 2021~2022 (사)인천YWCA 제1부회장, 미래희망위원회 위원장</li> <li>• 2023~현 (사)인천YWCA 회장</li> </ul>
<b>제천YWCA</b>  <b>이숙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2005 제천YWCA 이사</li> <li>• 2007~2008 제천YWCA 부회장</li> <li>• 2020~2021 제천YWCA 이사</li> <li>• 2022 제천YWCA 제1부회장</li> <li>• 2023~현 제천YWCA 회장</li> </ul>	<b>진주YWCA</b>  <b>정덕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2022 진주YWCA 이사</li> <li>• 2019~2021 진주YWCA 회계이사</li> <li>• 2023~현 진주YWCA 회장</li> </ul>
<b>(사)진해YWCA</b>  <b>박명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2018 진해YWCA 성평등위원회 위원</li> <li>• 2019~2020 진해YWCA 이사</li> <li>• 2021~2022 진해YWCA 제1부회장</li> <li>• 2023~현 진해YWCA 회장</li> </ul>	<b>(사)청주YWCA</b>  <b>윤성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2022 청주YWCA 이사</li> <li>• 2011 청주YWCA 상록수 운영위원회 위원장</li> <li>• 2012 청주YWCA 사회선교위원회 위원장</li> <li>• 2018~2022 청주YWCA 장학위원회 위원장</li> <li>• 2020~2022 (사)청주YWCA 회계이사</li> <li>• 2023~현 (사)청주YWCA 회장</li> </ul>

## 2023 회원YWCA 신임회장

<b>춘천YWCA</b>  이병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2022 춘천YWCA 이사</li> <li>• 2019~2022 춘천YWCA 제1부회장</li> <li>• 2023~현 춘천YWCA 회장</li> </ul>	<b>충주YWCA</b>  조영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2008 충주YWCA 이사</li> <li>• 2009~2015 충주YWCA 사무총장</li> <li>• 2020~2022 충주YWCA 이사</li> <li>• 2023~현 충주YWCA 회장</li> </ul>
<b>파주YWCA</b>  윤정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2018 파주YWCA 위원</li> <li>• 2019~2022 파주YWCA 이사</li> <li>• 2023~현 파주YWCA 회장</li> </ul>	

## 2023년 권역대표

### 5개 권역대표

<b>경상권역대표</b>  (사)수원YWCA 한금진	<b>경상권역대표</b>  (사)울산YWCA 김덕순	<b>경인강원권역대표</b>  (사)서울YWCA 조연신	<b>전라제주권역대표</b>  (사)제주YWCA 고미연	<b>충청권역대표</b>  (사)대전YWCA 정혜원
--	--	--	--	--

### Y-틴 전국협의회장

(사)전주YWCA  
김민선



###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장

(사)전주YWCA  
서다미



## 2023년 신임사무총장

<b>군산YWCA</b>  이명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03~1995.11, 1998.05~2000.01 군산YWCA 사회문제부 간사</li> <li>• 2003.10~2006.11 안산YWCA 여성자치부 간사</li> <li>• 2023.1~현 군산YWCA 사무총장</li> </ul>	<b>(사)대전YWCA</b>  권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1999 대전YWCA 간사</li> <li>• 1999~2001 대전YWCA 부장</li> <li>• 2001~2002 대전YWCA 여성의센터 소장</li> <li>• 2002~2003 대전YWCA 부장</li> <li>• 2003~2004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소장</li> <li>• 2005~2006 대전YWCA 여성의 센터 소장</li> <li>• 2006~2011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소장</li> <li>• 2012~2013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li> <li>• 2013~2015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소장</li> <li>• 2015~2023 대전YWCA 청소년위센터 관장</li> <li>• 2023.2~현 (사)대전YWCA 사무총장</li> </ul>
<b>부천YWCA</b>  임행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2003 부천YWCA 간사</li> <li>• 2005~2007 부천YWCA 부장</li> <li>• 2011~2012 부천YWCA 사무총장</li> <li>• 2022.5~현 부천YWCA 사무총장</li> </ul>	<b>서천YWCA</b>  정동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7.8~현 서천YWCA 사무총장</li> </ul>
<b>속초YWCA</b>  김순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2017 속초YWCA 햇살의 집 상담원</li> <li>• 2018 속초YWCA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li> <li>• 2019~2022 속초YWCA 햇살의 집 시설장</li> <li>• 2023.1~현 속초YWCA 사무총장</li> </ul>	<b>(사)안양과천군포의왕</b>  이규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2009 안양YWCA 간사</li> <li>• 2010~2012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li> <li>• 2013~2015 안양YWCA 간사</li> <li>• 2016~2017 안양YWCA 팀장</li> <li>• 2018~2020 안양YWCA 부장</li> <li>• 2020~2022.6 안양YWCA 국장</li> <li>• 2022.7~현 (사)안양과천군포의왕 사무총장</li> </ul>
<b>익산YWCA</b>  윤명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10~현 익산YWCA 사무총장</li> </ul>	<b>(사)인천YWCA</b>  김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인천YWCA 팀장</li> <li>• 2020~2021 인천YWCA 과장</li> <li>• 2022~2023 (사)인천YWCA 부장</li> <li>• 2023.2~현 (사)인천YWCA 사무총장</li> </ul>
<b>천안YWCA</b>  강규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2012 천안YWCA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간사</li> <li>• 2013~2017 천안YWCA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li> <li>• 2017~2018 천안YWCA 팀장</li> <li>• 2018~2021 천안YWCA 부장</li> <li>• 2021~2022 천안YWCA 국장</li> <li>• 2023.1~현 천안YWCA 사무총장</li> </ul>	<b>원주YWCA</b>  지해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4~현 원주YWCA 사무총장</li> </ul>

## 회원YWCA 정기총회 현장

# 우리 YWCA, 이것만은 남다르다!

2023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전국 52개 회원 YWCA는 정기총회를 열어 전년도 활동과 사업을 보고하고, 올해 진행할 사업 계획과 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회원 YWCA를 대표하는 회장을 선출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원YWCA에 따라서는 회원들에게 봉사상을 수여하는가 하면 Y-틴이나 대학·청년YWCA 회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 경기권역

- ①고양YWCA ②남양주YWCA ③부천YWCA ④성남YWCA
- ⑤수원YWCA ⑥안산YWCA ⑦안양과천군포의왕YWCA
- ⑧의정부YWCA ⑨파주YWCA ⑩하남YWCA



## 경인·강원권역

- ①강릉YWCA ②동해YWCA ③서울YWCA
- ④속초YWCA ⑤원주YWCA ⑥인천YWCA ⑦춘천YWCA



## 충청권역

- ①논산YWCA ②대전YWCA ③세종YWCA ④제천YWCA ⑤천안YWCA
- ⑥청주YWCA ⑦충주YWCA



## 경상권역

- ①거제YWCA ②김해YWCA ④마산YWCA ⑤부산YWCA ⑥사천YWCA ⑦안동YWCA  
⑧양산YWCA ⑨진주YWCA ⑩진해YWCA ⑪창원YWCA ⑫통영YWCA ⑬포항YWCA



## 전라·제주권역

- ①광양YWCA ②광주YWCA ③군산YWCA ④남원YWCA ⑤목포YWCA ⑥서귀포YWCA ⑦순천YWCA  
⑧여수YWCA ⑨익산YWCA ⑩전주YWCA ⑪제주YWCA



제2회 이행자리더십 어워즈 수상자

광주YWCA와 서울YWCA 100주년을 맞아  
YWCA 역사와 의미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



제정 취지

이행자리더십 어워즈는 한국YWCA 목적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연합회와 회원YWCA의 자원, 실무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제정된 상으로 이행자리더십기금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상자



김선옥 (사)광주YWCA 직전회장

1995 ~ 2011 광주YWCA 청소년, Y-틴, 사회문제위원회 위원  
2012 ~ 2022 광주YWCA 이사  
2012 ~ 2015 광주YWCA 청소년성문화센터, 청년-대학위원회 부위원장  
2015 ~ 2016 광주YWCA 어린이집위원회 위원장  
2017 ~ 2020 광주YWCA 부회장  
2021 ~ 2023.1 광주YWCA 회장



이유림 (사)서울YWCA 직전회장

2005 ~ 2010 서울YWCA 기획부, 청소년부, 건물관리부 위원  
2010 ~ 2014 서울YWCA 회원부-선교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선교부 부위원장  
2013 ~ 2017 서울YWCA 청소년팀 위원장  
2015 ~ 2017 서울YWCA 회계이사  
2017 ~ 2019 서울YWCA 부회장  
2019 ~ 2023.1 서울YWCA 회장

선정 사유

2022년 (사)광주YWCA와 (사)서울YWCA 100주년을 맞이하여 YWCA의 역사와 의미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법인 설립을 통해 기독교여성단체로서 공익운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헌하였다.

남녀동등한 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김은경

(사)한국YWCA연합회 이사, 성평등정책위원장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불가능한 현실이 되기도 한다. 서울, 경기를 거쳐 인천,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17개 시도 어디를 가도 여성 광역단체장이 단 한 명도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 226개 기초단체장 중 여성은 7명으로 3.1%, 광역의원 지역구 여성당선자는 115명으로 14.8%,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는 전체 2601명 중 650명으로 25%이다. 누군가는 ‘여성이 30-40%는 되어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작금의 상황은 ‘비정상’이다. 인구구성비는 남녀 반반인데, 정확히는 여성유권자가 더 많은데도 정치 영역에 유난히 과다대표된 남성들과 상대적으로 과소대표된 여성들 간의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④항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른바 ‘여성공천할당’ 규정은 2005년 도입된 이래 20년 가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말 그대로 무용지물, 있으나 마나한 조항일 뿐, 정치는 50~ 60대 남성들로 가득 차 있다. ...노력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자, 위반 시 후보 명단을 거부해야 한다, 남녀동수 헌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많은 남녀 시민들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바꾸자!’를 외쳐 온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녀동등한 참여(parity), 어떻게 이를 것인가?

지난 1월 전국 규모의 여성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여성공동행동’ (이하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공동행동’ 출범의 가장 큰 이유는 17명의 국회의원<sup>1)</sup>으로 구성, 운영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성대표성 확대는 위원회 논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한 상황 인식에서였다. 이에 함께 모인 연대 단체는 서둘러 정개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여섯 가지 항목의 ‘남녀동등한 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성별 균형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가치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 30% 할당(quota)이 아닌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남녀동등 체제(parity)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노력이 아닌 강제 조항으로 하여 한성이 100의 60을 넘을 경우 후보 등록을 거부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47조 5항의 여성 우선 조항도 지방선거까지 확대해야 하며, 자치단체장 선거에도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남녀동등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둘째,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이다. OECD 회원국의 인구수, GDP, 정부예산,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면 330~360석, 지역구와 비례대표 2:1 기준을 고려하면 380석이 적정 수준으로 분석된다. 혹자는 인구대비 500명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렇게 늘어난 의석은 지역 대표성 강화에

1) 2022. 7. 22일 구성. 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 전재수 김영배 맹성규 문정복 신정훈 / 국민의힘 소속 의원 / 이만희 허영 이양수 김상훈 김성원 이만희 장동혁 정희용 조해진 최형두 / 비교섭단체 의원 심상정 (남성 14명/여성 3명)



1월 12일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 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해 정치관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수도권 출신 의원이 절반을 넘는 국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이 느끼는 위기와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2)</sup> 정치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의원 수 확대에 부정적이라고는 하지만 '특권을 반으로 줄이고 정수를 배로 늘리는 전향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셋째,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거대 양당정치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정당제의 도입이다. 현행 정당법 제3조와 제17조, 제18조 중앙당은 서울에, 5개 지역 이상에 시도당이, 각 시도 당에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한다는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지역정당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역정당을 통해 거대 양당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을 입법화하고 다양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선출직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비효율성과 낭비 및 부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지역정당의 창당은 여성대표성의 확대와 더불어 지역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의 증액과 기준 개선의 제안이다. 현행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의 총액은 2002년 도입 당시에 정

해진 총액으로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정당의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반영한다. 정치자금법 제26조를 개정하여 현재의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의 계상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증액하고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배분 기준 또한 현행 ①지역구 의회 및 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비율(20%), ②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40%), ③정당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40%) 등 3가지 기준 중 ②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40%)을 ②정당별 여성국회의원수의 비율로 변경하고, 배분비율도 ①지역구 여성후보자비율 40%, ②정당별 여성국회의원수의 비율 30%, ③정당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 30%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당이 여성정치인을 발굴·양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여성정치발전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사용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의 근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치신인이나 여성 등 동원 가능한 자금이 부족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여성정치발전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정당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성후보 발굴과 훈련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당직자 인건비 등에 여성정치발전비를 지출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정책개발비(여성정책 공모 및 연구용역, 성별 분리 당직자 통계 개발 등), ② 여성후보 육성경비, ③ 차세대 여성후보 육성경비(인턴제 운영 및 예비 정치인 장학금 지급 등), ④ 남녀당원의 젠더감수성 교육, ⑤ 여성후보 지역 활동 경비 등 여성정치발전비에 대한 지출용도의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각 정당이 자체 당규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sup>3)</sup>


마지막으로, 남녀동등한 참여에 대한 여론 환기와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남녀동수의 날 및 남녀동수주간 설치'를 제안했다. 기실 남녀가 함께하는 정치로의 변화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임을 앞선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평등임금의 날'로 결실을 맺은 한국YWCA의 '동일임금의날 제정운동'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법률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에게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을 강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2.12.12.)에서는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자 했다. 남녀동등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남녀동수의 날 및 남녀 동수주간 설치·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공적인 대화하기 그리고 정치적 상상력 기르기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Getting a grip)>라는 책에서 '민주주의의 열 가지 기술'을 설명했다. 2023년 2월, 이전과는 다르게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와

중에 특별히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다. '공적인 대화하기 ;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기' 그리고 '정치적 상상력 기르기 : 우리가 지닌 가치에 맞게 우리 미래를 새롭게 그리기' 이다.

'공동행동' 차원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제안조차도 평소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전문가 토론에 참여하고, 관련 법규를 찾아보는 등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이해를 구하지 않는 이상 소화하기 어려운, 복잡하기 그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함께 이야기하고 새롭게 그리기를 실천한다면, 다시 시작된 개헌 논의와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의도정치에서 오가는 개혁 논의에 과감하게 뛰어들다면 말이다.

현재,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2017년, 53명에 달하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했던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후 6년만의 작업이다. 국회의장은 개헌 성공을 위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구했고, "정개특위에 2월까지 복수안 확정을 요청하고, 3월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속의적 토론을 통해 다수가 합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한(4월 30일)을 지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나름의 논리로 가부를 판단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과소대표된 여성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국회의원, 분야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들이 여성참여확대에, 남녀균형을 이룬 민주정치 확립에, 나를 위한 정치, 모두를 위한 정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우리가 선택한 가치에 맞게 그려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일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이번 정치개혁은 반드시 '비례성', '다양성',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여성공동행동'이 해야 할 일이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다. 

2) 강원택, 바람직한 선거제도 대안의 검토, 남녀동등참여 정치개혁 여성공동행동 워크샵, 2023. 2. 7.

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 제한)

# 탈석탄법, 무엇이 중요한지를 묻는다

##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동네마다 연탄을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다. 겨울철이면 집 앞에 연탄재가 수북했다. 연탄재는 잘게 부서 빙판길에 뿌리거나, 동네 꼬마들의 눈사람 만드는 심지로 쓰였다. 학교 교실에는 석탄난로를 사용했다. 겨울철 아침마다 청소당번의 주 업무는 뒤켠 창고에서 조개탄을 받아오는 일이었다. 집에서 학교에서 석탄을 쉽게 접하던 시절 내 나이 10살 때였다. 딱 그 또래의 어린이들을 2023년 국회 앞에서 만났다.

“여기 계신 어른들은 어릴 때 마스크 쓰고 살았나요? 저는 매일 마스크를 쓰고 사는데 이게 다 지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 때문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들이 쓰다 버린 듯한 지구에서 살아야 해요. 포스코 사람들! 석탄발전소 당장 그만두세요.” (10살 어린이 활동가)

“석탄발전소가 온실가스과 미세먼지를 많이 내보낼 건데 지금도 아픈 지구를 더 많이 아프게 할 거예요. 검은 숨을 쉬고 싶지 않아요. 저와 제 친구들이 함께 살 지구를 제발 지켜주세요”(8살 어린이 활동가)

지난 11월 24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린이 활동가들의 목소리다. 연탄과 조개탄이 일상에서 사라진 2023년, 석탄을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했을 어린이들이 국회 앞에 모인 건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건설 중인 포스코 삼척석탄발전소 때문이다. 전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를 막고자 빠르게 석탄발전소를 중단하는 와중에 새로운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지난 문재인 정부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아 포스코의 자회사가 건설하고 있는 것이 삼척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다.

포스코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부동의 1위의 기업이기도 하다. 한국이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2030년 전까지 석

탄발전소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삼척 블루파워가 계속 건설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건설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술하게 시민사회가 건설 중단을 외쳤음에도 한결같이 되돌아온 정부의 답은 ‘건설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 ‘탈석탄법 5만국민청원’ 운동 시작, 한달 안에 5만 달성

그래서 법을 만들기로 했다. 법을 만드는 권한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는 특정한 법안에 한 달 동안 5만 명의 국민이 서명하면, 국회가 자동으로 그 법안을 다루는 제도다. 작년 9월1일 삼척지역주민, 종교계, 환경단체 등이 함께 ‘탈석탄법 5만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다. 30일 안에 5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청원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서명 초기 20일 동안 참가자 수는 1만 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9.24기후정의 행진 이후 하루 5천~1만명씩 서명자가 늘어나면서 청원 마감 하루 전 9월 29일, 5만 명에 도달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기후위기 시대 정치권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의 결과다.

### 건설중인 석탄발전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금지법) 국회에 제안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무책임하고 무관심했다. 5만 시민의 청원은 방치된 채 시간이 흘러갔다. 어린이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사



탈석탄법 청원 소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2월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회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에 나섰고, 정당들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경남, 청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탈석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거리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드디어 지난 2월 14일, 국회 산자위의 청원소위가 열렸고, 해당 청원을 법안소위에서 다루도록 했다. 겨우 한 발짝을 떤 셈이고 가야할 길은 멀다.

시민사회는 청원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안 ‘건설중인 석탄발전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금지법)을 직접 만들어서 국회에 제안했다. 삼척블루파워는 1호기가 올해 말, 2호기가 내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공사를 중단시키고 발전소사업 자체를 철회시키는 법안이 필요했다. 아울러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지역주민, 노동자, 협력업체에는 합당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바로 신규석탄발전금지법이다.


#### 재산권은 공공복리 및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 법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사회적 논의와 저항이 따를 것이다. 삼척석탄발전소 취소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업의 사적 소유시설이라는 점 때문이다. 기후위기로부터 위협받는 인권 -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인간

답게 살 권리 등 - 과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이 충돌하는 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소유권은 마치 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산권이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 및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

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에 기반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신규석탄발전금지법은 헌법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입법부가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업은 힘이 세고 정치인들은 그들의 눈치를 본다. 탈석탄법을 둘러싸고 국회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석탄사업자-심지어 온실가스 배출 1위의 대기업-의 이익과 권리가 우선인가, 석탄발전이 불러온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이 우선인가.

기업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대면하는 기후위기와 생태붕괴다. 그래서 탈석탄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석탄발전소를 멈춰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기업의 권리보다 시민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고, 기본권 수호라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부단한 시민들의 싸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삼척블루파워 공정을 80%. 21대 국회 잔여 임기 1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정전 70년,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 한반도 전쟁위기해소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 |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한반도에서 3년간 이어진 참혹한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올해로 70년을 맞는다. 지난 70년도 잠정적인 휴전 상태였을 뿐 결코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었다. 언제든지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 끝나지 않는 적대와 군사적 긴장, 그리고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이용하고 부추기는 내외의 도전들로 인해 한반도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은 크나큰 고통과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 대화 채널 끊긴 남과 북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북미 정상의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했지만, 한반도 프로세스는 그 후 멈춰서고 말았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이행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둘러싼 이견 속에서 성과 없이 끝난 이래 교착되고 있다. 그 후 3년 여의 시간은 단순히 진전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불신이 가중되고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더욱 커져가는 시간이었다. 특히 지난해 이후 강 대 강의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그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북미 사이의 대화 채널은 모두 끊긴 상태다. 한반도 주변 상황도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깊어지는 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갈등이 깊어지고 대립의 양상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한반도가 냉전적 대결의 대리 전장으로 이용되고 휘둘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그러

나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며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 힘의 과시가 불러온 충돌위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간 합의를 대부분 부정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주창하고 마치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해왔다. 하지만 한미군사훈련 같은 힘의 과시는 긍정적 효과 대신 부작용만 낳고 있다. 북한은 '대북적대정책'을 핑계삼아 '핵 무력의 발전'을 급속도로 강화 발전시키고 있다. 남북간의 양보 없는 무력시위로 무장충돌 위험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증가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를 실질화'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 편승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원치 않는 미·중 갈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만, 남중국해 등지의 지역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만 더 커졌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핵기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 등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미중관계 악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간에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는 고사하고 기존 제재도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한반도 위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 정부는 남한의 핵보유 혹은 미국과의 핵공유 같은 자극적이고 비현실적인 처방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포기를 의미할뿐더러 핵무

기금지조약 등 국제적 흐름에도 배치된다. 북한의 핵보유 구실을 도리어 강화해 주고 한미관계마저 균열시킬 수 있는 자해적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반도는 상호위협 증가의 악순환, 핵 위협 증가의 악순환, 미·중 갈등 연루로 인한 관계악화의 악순환 등 3중의 악순환의 탓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 관계 개선이 먼저다. 평화가 우선이다

일부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실패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힘을 통한 평화와 안보'가 중요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어온 이유는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하고도 북한의 선제적인 핵·미사일 실험증단에 상응하는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기를 망설였기 때문이지, 무력시위를 덜 한 탓이 결코 아니었다. 남북,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적어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중단됐었다. 문재인 정부조차 남북합의 이후에도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남한의 1년 군사비는 북한의 1년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1.5배에 이르렀다.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거부하여 갈등을 키웠다. 새로운 관계 개선으로의 전환을 망설인 것이 위기의 근원이다. 이제 보다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평화우선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관계 개선을 우선하자', '평화를 우선하자'는 주장이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 휴전선을 넘었던 Women Cross DMZ(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여성들)운동과 여성 평화네트워크가 주장해왔고 2020년에 출범한 한반도중전 평화캠페인도 주장해온 접근법이다. 한반도 상황이 충돌 직전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파국을 막을 시간이 있다. 협상의 기회, 협력의 공간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절실한 때다. 정전 70년을 맞은 올해야말로 평화의 목소리를 한반도와 전세계에서 높여야 하고,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계기다.

##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

지난 2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End the Korean War, Let Us Peace!>가 열렸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는 전국 76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참여자들은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여, 시민사회 공동으로 집중적인 서명운동과 다양한 평화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자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적대를 멈추고 남북·북미 관계를 개선할 것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 것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할 것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한반도·아시아 평화공존을 실현할 것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할 것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올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 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내의 여론을 만들어내며, 최근 급속히 추진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모아낼 예정이다.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실현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100만 명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과 국회 한반도 평화 결의안 추진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국내 200개 시군구를 비롯한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 ▷7월 22일(토) 대구도 평화 집회와 행진 ▷7월 27일(목) 국제대회 ▷8월 15일 즈음 대규모 평화대회 등 집중적인 평화행동이다. 한반도 평화 서명운동으로 모인 100만 명의 서명과 국회결의안은 오는 10월 유엔을 비롯한 한국전쟁 당사국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향한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으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70년이면 충분하다.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 

# 굳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만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

## | 대학·청년YWCA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사회 교회 역시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교회 집회와 공동체는 자연스레 위축됐고, 3년 만에 일상으로 복귀한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에 직면했다. 2023년 청년토크는 청년 사역자, 청년 신학생, 청년 성도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 첫번째 청년토크는 국내 최초로 한국교회 트렌드를 분석한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 지용근 외 9인'을 읽고 팬데믹 이후 변한 교회청년들의 공동체와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쫓아가면 도망가는 MZ세대

**송이** : 우리는 코로나 이후 다시 교회를 나가고 있잖아. 다들 어떤 게 변했다고 생각해?

**무너** : 대면예배가 가능해진 이후 돌아간 교회에서 기존의 청년들, 새로운 청년들을 연결하는 게 너무 어렵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완성되는 게 너무 어려워.

**미니** :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나는 이전의 양육과 성경공부 방식으로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쉽지 않더라고. 친구들과 공동체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을 연구하고 있어.

**무너** : 다들 경계심이 심해졌다고 할까? 다가오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용용** : 의미없는 채깁이 아닌 더욱 진실한 관계를 원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아져서 예전처럼 교회의 무조건적인 친절함이 어색하고 불편한 것 같아.

**송이** : 나도 대형교회 새신자반 했을 때 너무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어. 친절하게 환대해줘서 고맙지만 새가족반이 끝나자마자 바로 모른 척 해버리더라고.

**무너** :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심방을 통해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 나는 부정적이야.

**용용** : 맞아. 임원직을 맡는 사람에게 전화 심방을 거의 반강

제로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부담스러워. 나로 인해 교회 출석여부를 정하는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

**송이** : 공감해. 관계성에 대한 부담때문에 소그룹 리더를 하기 점점 부담스러워져.

### 교회가 없는 크리스찬

**송이** : 요즘 플로팅(floating)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대.

**용용** :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송이** : 사전적으로 붕 떠있는 크리스찬을 말해.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여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라.

**미니** :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공간으로 한정되지 않게 되면서 듣고 싶은 교회의 설교를 골라듣는 청년들이 많아진 것 같아.

**무너** : 설교에 따라 교회를 옮기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편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

### 영적인 체험

**무너** : 주변에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

**미니** :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부활은 믿지만 종교 활동은 굳이 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송이** : 그걸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이라고 한대.

**용용** : 종교 활동이 가능해졌지만 굳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만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구나.

**미니** : 절기마다 교회에 방문하는 청년들은 그 몇 번의 방문에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싶어해.

**송이** : 나도 일 때문에 지역을 옮기면서 교회를 특별한 행사 때만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특별한 느낌을 받고 싶었어.

**무너** : 행사 때는 교회를 꾸미고, 성스러운 준비를 하니깐 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평소에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으니깐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거 같아.

**미니** : 청년들이 워십예배만 참여하고 주일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

**용용** : 온라인을 통해서는 내가 필요하고 듣고 싶은 예배를 찾아 듣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영적인 경험을 바라는 게 요즘 청년들 트렌드 같아.

### 버블을 걷어내다

**미니** : 지금껏 우리는 모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당연하게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갔지만 팬데믹을 통해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고, 모이지 않아도 괜찮은 신앙이 됐어.

**송이** : 맞아. 모이지 않게 되면서 교회, 교인, 신과의 관계에 대해 소홀해지고 자연스럽게 신앙의 거품이 사라진 것 같아.

**무너** : 거품이 사라지고 앙상해진 신앙의 분량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야.

**미니** :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며 신과의 관계, 공간과의 관계, 사람간의 관계를 새롭게 쌓아가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어.

**용용** : 팬데믹이 지나며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 양적 성장을 멈추고 질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무너** : 어떻게 보면 팬데믹은 황금같은 기회라고 볼 수 있어.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종교가 세계로 확산된 것처럼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신앙을 삶의 현장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해.

**송이** :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집단에 대한 소속이 아니라 개인의 재량과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같이 있어주고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해.

**송이** :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타락한 교회에 대한 논란이 많았잖아. 이런 이미지들이 고착화되면서 개인의 소신과 가치

가 중요해진 청년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 공공을 위한 교회

**무너** :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기성세대들의 요구를 이해 못하지.

**미니** : 이런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교회에서도 사회를 위한 공공적이고 가치있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해.

**용용** : 우리 교회에서는 '생태선교'를 하고 있어. 생태선교부를 만들어서 교회 내에 리필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전교인이 함께 플로깅도 나가고 있어. 이런 걸 청년들이 좋게 보더라고.

**송이** : 좋다. 우리도 교회 내에서 현수막 제작을 안 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작년에는 추수감사절을 표현하기 위해 현수막 대신 떨어진 나뭇가지로 꾸몄어.

**무너** : 공공의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를 보면 자연스럽게 청년들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미니** : 강제적인 헌신은 더이상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교회가 먼저 공익성을 갖추고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해.

###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송이** :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어.

**미니** : 맞아. 기존의 교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해 주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교회로 청년들이 몰리더라.

**무너** : 청년을 교회 의사결정에 넣어주는 것도 중요해.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설자리가 없어.

**용용** : 교회가 조금 더 투명하고, 솔직하고, 신뢰를 느낄 수 있어야 돼.

**송이** : 맞아. 내부의 잘못된 눈감아주고, 지나친 헌신만 강조하는 교회를 보면 청년들은 떠날 수밖에 없지.

**용용** : 청년 크리스찬들에게 더 집중하고, 그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청년세대야. 이들을 포기해서는 안 돼. 

# 다음을 위해 응답할 책임

## - 다음 소희

### |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연구위원

#### 다음 세상에 질문을 던진 죽음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성난 겨울, 한 학생이 은빛 윤슬이 반짝이는 차가운 저수지 앞에서 있다.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 그에게 이 세상은 온몸을 차갑게 파고드는 칼바람보다도 더 냉혹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김소희(김시는 분). 지방의 어느 특성화고 3학년생으로 어느 대기업의 콜센터에서 취업실습중이었던 그는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차디찬 얼음호수로 몸을 던진다.

영화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2017년 1월, 전주의 한 저수지에서 한 여성이 시체가 발견이 되고, 곧이어 그 시신은 전주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대기업의 하청회사 콜센터 현장 실습생이었음이 밝혀진다. 고(故) 홍수연. 망자의 아픈 삶과 그 목소리는 영화를 통해 다시 이 세상에 말을 건다.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좋아하던 어린 학생은 왜 삶을 버리고 말았는가.

수많은 젊은 목숨들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죽고 다치고 망가지지만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악화되며 쉽게 잊혀지는 현실 속에서 그의 죽음 또한 쉽게 잊혀지는 듯했다. 하지만 망자의 희미한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힘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러 형태로 모여지다가 마침내 이 영화, <다음 소희>로 더 큰 질문들과 울림을 만들어 낸 것이다.

영화의 제목대로 이 영화는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또 다른 소희를 만들어낼 것인가, 다음 소희가 살아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가슴 서늘하게 묻는다.

주인공 소희가 일하는 통신사 상담 콜센터는 대기업의 협력회사이지만 사실은 하청업체로서 특성화고등학교와 계약

을 맺고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싼값으로 노동력을 제공받는다. 학교는 학교대로 안정적으로 취업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하는 그곳이 어떤 환경인지는 관심도 없이 취업 실적을 올리는 데 여념이 없다.

#### 힘든 노동이 멸시받는 세상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좋아하면서 출근한 곳에서 소희가 하는 일은 이른바 통신계약을 해약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방어’하는 것이다. 최대한으로 해지를 막고, 다른 조건을 제시하여 또 다른 계약을 따내는 일인 것이다. 설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속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으로 시작되는 응답 전화는 별별 진상 고객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온갖 불평과 불만, 저열한 욕설과 성희롱이 난무해도 흔들리지 않는 친절함 목소리로 응대해야만 한다. 수많은 경우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암기하고 간과 쓸개를 다 빼고 상냥한 태도로 최대한 응대하지만 고객의 폭언과 멸시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급기야 찹추기를 좋아하고 정의감에 넘치는 소희는 ‘감정노동자’로서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분노를 터뜨리며 폭주를 하지만, 회사는 자기 회사 노동자들이 받는 모멸과 상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사무실 벽에는 “경청과 배려가 살아 숨 쉬는 즐거운 직장으로 고객 관점 상담”이라는 슬로건이 박혀 있을 뿐이고, 또 한쪽 벽에는 각 콜센터 노동자들의 실적이 담긴 그래프들이 장식되어 있다.

그렇다. 회사는 감정노동자로서 상처받고 소모되어 나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새로운 노동력을 쉽게 공급받는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 놓고 오로지 실적만을 위해 달려갈 뿐이다. 더구나 실습생들을 야근수당과 성과급이라는 유인책으



로 과잉노동을 하게 만들고는 그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자신의 상사가 콜센터의 노동환경과 비리를 폭로하고 자살해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현실 속에서 절망한 주인공 소희가 미친 듯이 ‘성과급’을 위한 실적을 쌓아가지만 그마저 ‘돈만 밝히는 애’로 비난받으며 받지 못한다.

이 같은 현실은 나중에 주인공 소희의 죽음을 추적해가는 의로운 형사 유진(배두나 분)에 의해 조금씩 밝혀져간다. “힘든 노동이 왜 존중받지 못해 멸시받아야 하는 거야”라고 탄식하는 형사의 울분 속에 주인공 주변 친구들,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나간 다른 어린 노동자들의 현실이 또 겹쳐진다. 형사가 사주는 국밥을 먹으며 서러움에 붉은 눈물을 떨어뜨리던 주인공의 남자친구, 같은 콜센터에 있다가 잘리고 또다시 백화점 주차장에서 또다른 감정노동자로 살아가는 동료들...

우리 일상의 안락을 지탱하기 위해 행해지는 수많은 노

동들을 생각한다. 새벽 4시부터 컷버스를 타고 고된 출근을 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있기에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재료를 씻고 옮기고 뜨거운 불 앞에 조리하는 식당의 조리사들의 힘든 노동 덕에 오늘도 밥을 먹고 하루의 삶이 이어진다. 영화 속 이 어린 노동자들의 눈물을 보며 가슴 먹먹해진다. 그리고 나도 또 묻는다. 왜 이들의 고된 노동은 보이지 않는 노동이 되고 멸시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응답할 책임으로

소희의 삶을 뒤따라 가는 형사 유진이 마주친 것은, 현장 실습생 소희의 죽음에 협력한 견고한 시스템이다. 실적과 이윤만을 쫓으며 소희를 죽음으로 내몬 현실을 감추려 하는 회사와 거기에 열렬히 협력하는 학교, 소희 죽음을 추적하는 형사를 저지하려는 경찰 조직, 불법을 묵인해 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노동청과 교육청, “이제 적당히좀 하시죠”라고 말하는 장학사의 모습에서 형사 유진은 “학생이 일하다 죽었는데, 누구 하나 내 책임이라는 데가 없어”라며 절규한다.

이 영화 <다음 소희>는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단단한 침묵과 무관심에 가슴 먹먹한 질문을 던진다. 소희의 죽음에 정말 우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가. 정말 우리 사회는 다음에 소희 같은 죽음을 또 다시 만들도록 용인할 것인가.

이 영화의 포스터는 비록 형사 유진이 소희와 같은 공간 속에 있는 가공의 모습이다. 거기엔 비록 소희의 죽음 이후 시간 속에 있지만 소희의 억울한 목소리에 응답하려는 유진의 슬픔과 비장함이 담겨있다.

우리는 이제 영화가 던진 묵직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페미니스트 도나 해러웨이는 ‘책임(responsibility)’은 곧 ‘응답가능성(response-ability)’이라고 했다.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니버도 책임윤리의 첫째 요소는 바로 ‘응답’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는 억울한 목소리에 얼마나 응답 가능한 사회인가. 다음 소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응답할 책임,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 안아야 할 사명이다. 

# 2023년 Y-틴 중점운동 '기후와 인권'

'2023 Y-틴 전국협의회'가 1월 13일(금) - 14일(토)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Y-틴의 2022년도 활동을 정리하고 2023년 진행하게 될 중점 운동과 그 운동을 이끌 임원을 뽑는 행사로, 광주, 논산, 대구, 대전, 마산, 목포, 부산, 서울, 세종, 속초, 순천, 안산, 여수, 울산, 인천, 전주, 창원, 청주, 충주 등 총 19개 회원YWCA의 청소년과 활동가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여는 예배에서 이수연 목사(새삼교회)는 '꽃이 피면, 봄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Y-틴의 리더십 성장을 독려했고, 이후 원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Y-틴은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생각하며, 나누고 행동하는 젊음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청소년들이라 정의하며 Y-틴 청소년들의 활동을 응원하였다.'

이어 Y-틴 청소년들은 2023년도 중점운동 선정을 위한 교육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북부지역의 김태희(서울

YWCA), 서유람(인천YWCA) 청소년은 Y-틴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후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기후와 인권'을 주제로 강연하며 청소년들의 기후운동 필요성과 기후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서부지역 김예은(순천YWCA), 이다희(여수YWCA) 청소년은 같은 주제로, 청소년들이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기후와 인권' 운동을 소개하고,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기후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퍼포먼스를 전개하였다. 기후위기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고민하며 포스트잇을 붙임으로, 문제를 지워내고 사람(人)만 남게 한다는 퍼포먼스를 통해 개인의 행동 변화를 넘어, 정부와 정책의 변화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생명평화'와 관련된 교육이 진행되었다. 중부지역 신민서(대전YWCA)와 이은우(대전YWCA) 청소년은 국

제 상황과 한반도의 상황을 설명하며 생명평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한 뒤, 생명평화로 4행시를 짓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활동에서 1조는 '(생)명은 언제나 그 무엇보다 소중한입니다. (평)문대생, 공장 노동자 상관없이 말이예요. (평)화로 온 사회, 국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화)합해야 합니다'라는 4행시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동부지역 홍선희(울산YWCA) 청소년은 한반도 생명평화운동 사례를 설명했다. 평화로고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며 '정전 70주년 한반도 서명 캠페인'에 Y-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튿날인 14일(토) 오전에 진행된 전국협의회 본 회의에서 한국YWCA Y-틴 청소년들은 2023년도 Y-틴 중점운동을 '기후와 인권'으로, 슬로건을 '500만 년의 세월, 2050년 한순

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로 채택하였다. 전국협의회 회장으로는 김민선(전주YWCA) 청소년이, 전국협의회 총무로는 신민서(대전YWCA) 청소년이 선출되었고, 각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동부지역 회장, 총무로는 김여진(부산YWCA), 홍선희(울산YWCA) 청소년이, 중부지역 회장, 총무로는 이은우(대전YWCA), 차지윤(충주YWCA) 청소년이, 서부지역 회장, 총무로는 김예은(순천YWCA), 강지수(목포YWCA) 청소년이 선출되었다. 한편, 북부지역의 회장과 총무는 3월 지역협의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2023-Y-틴 전국협의회' 이·취임식을 통해 마무리되었으며, 김민선 회장은 '가진 능력을 발휘해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운 회장이 될 것'이라며 새 포부를 밝혔다.

## 김민선

Y-틴 전국협의회 회장



안녕하세요? 한국YWCA 2023년도 Y-틴 회장 김민선입니다. 2022년 전주Y로 활동하면서 많은 경험을 얻고 YWCA에 대해 알아가고 풍부한 매력을 몸소 느꼈는데요. 이번 2022 전국협의회는 저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습니다. 새로운 경험, 사람을 좋아하는 저는 학교 추천으로 Y-틴을 처음 접했고 그저 봉사동아리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회원을 만나고 활동을 하며, YWCA가 정말 말이지 가볍지 않은 역사와 의미, 노력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마음이 담긴 단체와 함께하는 것마저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저인데, 이렇게 막중한 자리에 올라 너무 영광스럽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전국협의회를 다녀온 후, 친구에게 "Y-틴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가 너무 좋고 소중하다.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 기쁘다"라고 전하니 "모두 봉사와 권리를 생각하고 모인 분들일 테니 그럴 수밖에"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어요. YWCA가 좋은 단체이고, 좋은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던 건 말이지. Y-틴으로 활동하면서 저는 성취감, 끈기, 봉사, 우정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사람을 접하며 도약하듯 성장했습니다. YWCA는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YWCA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Y-틴의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자랑스럽게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민서

Y-틴 전국협의회 총무



안녕하세요. 2023년도 총무로 선출된 신민서입니다. 저에게 과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총무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임원직은 처음이기도 하고 다른 임원직과 달리 전국 임원직이어서 많이 설레고, 총무에게 주어진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전부 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YWCA에 대전Y로서 참여하게 되었고, 친척의 추천으로 활동을 중학생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학교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봉사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구환경, 성폭력, 인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저는 어느새 봉사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YWCA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청소년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활동 제한도 많아지고 청소년들의 의견이 세상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제한도 많이 풀리니 청소년들의 의견을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1년 동안 총무로서 맡은 바를 다하고 회장님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기후와 인권 골든벨 ② 2023 Y-틴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 ③ 기후와 인권 퍼포먼스 (사람(존재) 살리기) ④ 2023 Y-틴 전국협의회 단체사진

# “기후위기, 청년이 답하다” 전국운동주제 채택

## | 조은지

(사)한국YWCA연합회 청년이사

2023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총회가 1월 7일(토)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렸다. 코로나의 기간을 견디고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의 오프라인 총회였다. 지역별로 인원수의 제한은 있었지만 10개 회원YWCA(대구, 대전, 목포, 서울, 세종, 수원, 안양, 인천, 전주, 청주) 정대표 16명, 연합회 실무자 2명과 회원YWCA 실무자 5명까지 총 23명이 참가했다. 연합회에 도착한 청년들은 새로 꾸려진 연합회 건물을 둘러보고, 자신의 명찰을 직접 꾸미며 총회에 대한 마음을 다잡았다.

총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2022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김현진 소통국장의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서로를 소개하고, 어색함을 푸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다양한 게임을 통해 서로에게 말을 붙이고, 손을 맞잡아보며 다른 지역 청년들과 함께 어울렸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이어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서다미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총회가 시작됐다.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활동 보고와 함께 회원YWCA의 각 활동들도 지역별로 돌아가며 활동 보고를 진행했다. 활동이 활발한 회원YWCA도 있었지만, 회원 모집부터 어려움이 존재하여 활동이 없던 회원YWCA들도 존재했다. 서로의 활동 내용과 함께 어려움을 토로하며 2023년

의 활동을 독려하고 응원했다. 또한, 대전 YWCA 김문희 회장의 2022년 활동 소감도 들어보았다.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쓰.없.행(쓰레기 없는 여행)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으며 새로운 활동들로 다양한 관심을 가질 수 있던 한 해였다고 나눴다.

### 2022년 청년 법인이사들의 청년위원회 활동과 계획 발표

작년 2022년은 청년에게 뜻 깊은 한 해였다. YWCA의 청년 법인이사가 새롭게 세워지며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도드라지게 되었다. YWCA 조은지 청년부회장은 2022년 청년 법인이사들의 청년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고, 2023년 청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덧붙여 청년 법인이사들의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응원 영상을 제작하여 본인에게 Y란 어떤 곳이며 청년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등에 관한 이야기로 2023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활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어 2023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임원 선출이 진행되었다.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번 총회에서는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기획국장, 소통국장에 대한 선출이 진행되었다. 소

## 일상 속 실천으로 기후위기 대응활동 펼칠 터

### | 서다미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장

2022년에는 한국YWCA연합회의 100주년을 축하하는 여러 과정에 청년들이 함께하여 100년 역사에 청년으로서 한 획을 그을 수 있었고, 한국YWCA에 더욱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청년이사로서 활동하며 청년 이사의 역할과 청년 이사가 가져야 하는 책임감을 배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다양한 변화를 맞은 만큼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과 청년위원회와 대학·청년YWCA를 유연하게 연계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저에게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청년YWCA와 청년위원회가 함께하여 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이 둘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배우고 적응해 가는 과정이었다면, 2023년에는 청년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기존 대학청년YWCA의 틀을 벗어나 새

로운 활동들을 시도해보는 것을 목표로 두려고 합니다.

2023년 대학·청년YWCA 목표로는 청년을 YWCA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청년들의 활동 방식이 많이 변화했고, 청년들이 한 단체에 모이는 것보다 특정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학청년YWCA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나가 YWCA 속 청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모두 서로 연계되어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학·청년YWCA에서는 기후위기를 중점 운동 주제로 톱블러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운동부터 시작하는 기후위기 대응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기존 틀을 깨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활동들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국장은 임원 후보가 없어 공석이 확정되었으며, 기획국장은 2022년 기획국장 이에림 회원이 선출되었다. 2023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서다미 회장과 이에림 기획국장은 회원YWCA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프라인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는 것에 맞게 다양한 전국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새로워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에 맞게 전국운동주제도 새롭게 채택되었다. 이에림 기획국장의 “기후위기, 청년이 답하다”라는 전국운동주제 제안과 함께 전국운동주제 채택에 관한 찬반투표가 이루어졌다. 회원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야

함을 투표로 보여주었다. 총 16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2023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전국운동주제는 ‘기후위기, 청년이 답하다’로 정해졌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였다.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지역 활동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청년회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역 회원들은 처음에 흘렀던 어색한 기류가 무색하게 총회가 끝난 뒤 임원들이 꾸며놓은 포토존에 모여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지역으로 돌아갔다. 청년들의 환한 미소가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빛내주길 바란다. 



# 키다리학교 활동나눔

## 이은혜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사)한국YWCA연합회는 2월 11일(토), (사)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성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청소년 대안학교 '키다리학교'의 마지막 활동인 '2022 키다리학교 활동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2022년 키다리학교를 운영한 대전, 목포, 부산, 순천, 창원, 청주 6개 지역의 회원YWCA 대표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2022 키다리학교 활동나눔은 YWCA 공문기도문을 낭독함으로 시작됐다. 구정혜 (사)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키다리 활동들이 지금은 작은 결과로 보이고 개인적인 보람이나 성장에서 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사회 문제들을 더 세심하게 바라보게 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더 큰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며 1년 간의 키다리학교 활동을 응원하였다. 또한 김대영 키다리학교 TF위원은 “키다리 청소년들이 하는 일은 곧 글로벌 세계를 리드하는 일”이라며 키다리학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키다리 청소년들은 이미지 카드와 함께 자신을 소개한 뒤, 2022년 한해 자신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활동을 보고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①목포YWCA 김유나, 최선희 키다리 청소년의 발표 ②창원YWCA 평화보드게임 ③청주YWCA 전기절약 챌린지 ④단체 사진

### 대전YWCA - 키다리 Deadline

대전Y는 지구온도가 지구의 자정작용이 작동되지 않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밝히며 대전Y의 활동명 - 키다리 Deadline'을 설명하였다. 임사랑 키다리 청소년은 대전Y의 '쓰엠행(쓰레기 없는 여행)' 활동을 두고 "여행을 할 때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다른 활동에 비해 '쓰엠행'은 특별히 재미있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친구들이 많이 함께 해서인 것 같다"라며 후기를 남겼다. 이러한 '쓰엠행' 활동과 관련하여 청주Y는 '쓰엠행'이야말로 청소년들이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하는 프로그램이며 재미와 의미 모두를 지닌 활동이라 평가하였다.

### 목포YWCA - 소년심판 :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환경운동에 대한 심판

목포Y의 김유나, 최선희 키다리 청소년은 '세상 모든 사람이 환경을 보호하는 작고 쉬운 일부터 실천한다면 깨끗한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작은 생각에서 키다리 활동의 시작되었음을 밝히며 '공병 무드등 만들기', '고체 삼푸바 만들기', '용기내 챌린지'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기후활동을 소개하였다. 한편, 목포Y는 제작한 '천 마스크'를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한 일을 소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기부로 이어진 활동의 선순환에 관심 가졌다.

### 부산YWCA - 기후위기

부산Y는 김여진 키다리 청소년이 '기후위기 워크샵', '기후전시회 참여', '친환경 치약 만들기' 등의 활동들을 설명하였다. 김여진 청소년은 키다리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주체성까지 배웠음을 고백하며 키다리학교를 자신의 '두 번째 학교'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부산Y는 '플로깅', '전시회', '키크닉(키다리 피크닉)' 등의 오프라인 모임을 많이 진행하였는데, 이 활동과 관련하여 창원Y는 오프라인 모임의 가능성에 집중하며, 2023년의 모임형식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지역에서 지역의 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 순천YWCA - 그린컴트루(GREEN COME TRUE)

순천Y에서는 영상을 통해 '해양 정화활동', '양말목업사이클링' 등의 한해 활동들을 소개하였다. 나아가 장민지 청소년은 '검은 목요일 캠페인'을 소개하며 친구들에게 캠페인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였고, 서영현 청소년은 '커피박을 활용한 나만의 반려 식물심기' 활동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습관이 생겼다고 발표하였다. 순천Y는 2022년 한해 많은 키다리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비결을 묻는 질문에 '한 명이 한 명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인원을 늘렸으며, 활동을 진행하며 재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활동은 과감하게 수정하여, 계속하여 활동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했다'고 답했다.

### 창원YWCA - 평화감수성 빌드업

2022년 평화를 주제로 활동한 창원Y의 이현지 키다리 청소년은 평화라는 것이 전쟁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님을 설명하며, 평화로운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창원Y에서 진행한 '디지털 리더러시-청소년 기자단', '청소년 해외봉사단-평화보드게임 제작', '도레미 산악회', '기후위기 공부-공나물 키우기' 활동을 소개하였다. 특별히 주변 Y들의 관심을 받은 활동은 친목을 위해 진행한 산악회 활동과 디지털 리더러시 활동이었다. 청주Y는 산악회의 활동이 발표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 표현하였고, 부산Y는 내년도에는 부산에서도 리더러시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 이야기하였다.

### 청주YWCA - 기후위기와 환경

청주Y는 22년도 진행한 '기후위기 울동챌린지', 'CCDA 영화감상', '전기절약 개사 챌린지'를 소개하고, 청주Y 키다리 청소년들의 성장사례를 공유하였다. 한빛 키다리 청소년은 키다리 활동을 하면서, 기후 문제를 아는 것을 넘어 생활 태도가 변화되었다고 증언하며 23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청주Y의 활동과 관련하여서 목포Y는 '문화, 예술'이라는 키워드로 청주Y의 활동을 정리하며, 예술의 영역에서도 기후활동을 진행해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으며 활동소감을 밝혔다.

### 세종YWCA- 청소년 행복권

당일 세종Y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활동 결과보고집을 통해 2022년 활동을 함께 공유하였다. 세종Y는 '청소년 행복권을 주제로 '벽화 그리기', '스포츠포스트 체육활동', 'EM홍공 던지기', '복숭아 병조림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 키다리 활동체험(창원YWCA/청주YWCA)

특별히 이번 활동 나눔에서는 창원Y와 청주Y의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 준비되었다. 이현지 창원Y 키다리 청소년이 '평화마블, 빌드 업'이라는 제목으로 창원Y에서 직접 만든 평화보드게임을 진행하였고, 게임 후에는 게임의 목적이 곧 평화에 대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는 승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리더가 있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한빛 청주Y 키다리 청소년은 청주Y에서 K-pop을 개사해 진행한 '전기절약 울동 캠페인'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챌린지는 키다리 연합 인스타(y\_kidali)를 통해 전시되었다.

'2022 키다리학교' 활동 나눔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2022년의 키다리학교 활동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혼자가 아닌 서로'가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연합회는 23년도 키다리학교 수를 늘려 8개의 키다리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키다리학교는 YWCA에서 운영하는 토요일대안학교입니다. 키다리학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치와 실천이며, 이를 위해 키다리학교의 교육과정은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교육 장소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YWCA회관이나 특정한 교실 외에도 어느 곳이나 가능합니다. 키다리학교에서는 교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활동에 참여하는 키다리들과 운영에 참여하는 키다리 리더들이 모두 키다리학교의 배움의 주체입니다. 키다리학교에서는 참여하는 키다리들과 지원하는 키다리 리더들이 교육목표, 과정, 활동을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고, 함께 만들어갑니다.

# 실효성있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회의 응답을 기다리며

| 유에스더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포스코가 새로 건설 중이며, 최초 점화를 앞두고 있던 '삼척 블루파워(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막기 위해 '삼척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와 한국YWCA를 비롯한, 종교, 환경, 시민사회단체가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를 발족하고 국민청원운동을 벌였다. 한국YWCA는 100주년 감사축제를 비롯한 여러 행사에서 회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원 참여를 독려했고,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였던 작년 '9.24기후정의행진'을 지나면서 국민 5만 명의 동의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마땅히 응답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청원소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 YWCA RE100팀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피케팅 진행

이에 연대에서는 국회의 청원소위 개최를 촉구하기 위해 매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피케팅을 진행하였고, 한국YWCA 연합회에서는 1월 31일(화) RE100팀이 참석하였다. 청소년운동 담당 이은혜 간사는 “청소년들이 살아갈 현재와 미래를 위해,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고, 성평등 담당 이한빛 간사는 “한국 뿐 아니라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라도 탈석탄법 제정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또, 탈핵기후생명운동 담당 유에스더 간사는 “3만 5천 명의 시민이 기후정의의 외침을 거리로 나왔고, 5만 명의 국민이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했으며, 5천만 국민이 기후재난을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의 응

답을 촉구했다. 해당 발언은 '정치하는엄마들' 유튜브 채널(하마TV)에도 업로드되어 있다.

## 지역RE100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유권자 캠페인

전국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을 결의한 한국YWCA연합회는 전국이 함께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역RE100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유권자 캠페인'을 준비했다. 캠페인은 기후위기를 직면한 지역민이자, 유권자,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국회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세 가지 행동으로 진행되었다. 우선은 청원소위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서한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질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였으며,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없는 지역의 회원YWCA에서는 각 지역정당으로 서한문을 발송했다.

1. 시민 5만 명이 동의한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지 또는 반대, 사유)
2. 산자위 청원소위를 조속히 개최해 탈석탄법 제정을 결의하고 관련 법안 논의를 촉구합니다. 청원소위 개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3. 21대 국회가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을 상정하고 입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는 각 지역 정당 및 의원들과 면담하고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공개서한문



전국 18개 회원YWCA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실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위로부터 광주YWCA, 남원YWCA, 대전YWCA, 속초YWCA, 충주YWCA)



에 포함된 질문과 함께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였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 세 가지였다.

- 탈석탄법 제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주십시오
- 청원소위를 조속히 개최해 탈석탄법 제정을 결의하고 법안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을 상정하고 제정해 주십시오

마지막은 다양한 방식의 직접 행동인데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지역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국회의원실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하는 것, 거리행진을 하는 것 등이었다.

캠페인은 청원소위 마감인 2월 26일(일)까지로 기획되었

고 18개 회원YWCA(강릉, 고양, 광주, 김해, 대전, 동해, 마산, 서울, 속초, 울산, 원주, 진해, 창원, 청주, 춘천, 충주)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혹은 회원YWCA 단독으로 다양한 캠페인 진행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회원YWCA,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으로 국회는 2월 14일(화) 오후 2시 청원소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일 개최된 청원소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불참하였다. 소위는 탈석탄법 청원 내용이 산자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너지전환지원법)'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탈석탄법 국민청원은 단독으로 이뤄지지 않고 에너지 전환지원법을 심사할 때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원을 사랑하고, 섬기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다름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 지역 사회가 더욱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임을 다짐했다.

또한 회원YWCA 회장들이 이 땅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YWCA의 목적을 기억하고 본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나누었다. 이어 YWCA에서 전개하는 중점운동인 탈핵기후생명운동과 지역특화운동인 성평등운동, 청(소)년운동의 구체적인 운동 정책을 이해하고, 이 모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YWCA 운영 정책을 배웠다.

현재 YWCA의 재구조화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지역에서 회원YWCA가 지역 운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알아야 할 재구조화 이후의 과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YWCA 운영방법과 회장으로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비영리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YWCA 목적 실현에 요구되는 회장의 역할과 리더십을 이해하는 워크숍 시간을 가졌다. 이때 신입회장들은 이사회의 역할과 회장의 역할, 그리고 실무활동가 각각의 역할은 물론이고,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을 이해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당일, 혹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던 교육이 드디어 1박 2일로 진행되면서, ‘회장 네트워킹 및 다짐’ 시간을 통해 신입회장들은 회원YWCA 회장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부담감을 나누고 공감하며 동료로서 함께하는 회장들이 있다는 연대감을 느끼며 서로의 사명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섬기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회원을 사랑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YWCA의 새로운 100년의 시대를 열어가갈 수 있는 힘과 다짐들이 용솟음쳤다. 

올해 전국 22개 회원YWCA의 신입회장이 참여한 <2023 YWCA 신입회장교육>이 2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사)한국YWCA연합회에서 진행되었다. <에큐메니컬 기독교신앙과 YWCA의 사명>(장윤재 이화여대 교수), <YWCA 목적과 회장의 사명>(원영희 연합회 회장), <2023년도 YWCA 운영 및 운동정책>(구정혜 연합회 사무총장), <회원Y 재구조화 성과와 과제>(박동순 연합회 국장), <비영리 거버넌스와 회장 리더십>(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회장 네트워킹 및 다짐 나눔>(송록희 연합회 국장)의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100년의 시대에 들어선 한국YWCA는 한국사회에서 100년의 역사를 지닌 유일한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나라를 건설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신입회장 교육 참가자들은 YWCA의 새로운 100년의 첫 페이지를 적어나가는 주역이다. 2023 신입회장교육은, YWCA의 회장으로서 YWCA의 목적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회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을 시작하며 신입회장들은 장윤재 목사의 주제 강연을 통해 에큐메니컬 기독교여성시민단체인 YWCA에서 서로의



지역RE100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유권자 캠페인의 모습  
 (6)의정부YWCA (7)속초YWCA (8)충주YWCA (9)춘천YWCA, (10)안양과천군포의왕YWCA


##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기후정의기도회

청원소위가 열린 2월 14일(화) 저녁 7시, 국회 앞에는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기독교단체들이 함께하는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의 올해 첫 분기 기후정의기도회가 열렸다. 임준형 집행위원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예배자들은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홍수진 부장의 기도로 마음을 모았다.

“놀린 자와 함께 일어나시는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기후재난으로 고통받는 약한 이웃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짓밟는 발을 꺾으십시오.  
 인간의 욕심으로 어그러진 창조세계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석탄발전소가 새로 세워지는 삼척과 핵발전 지역에  
 당신의 정의가,  
 우리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에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는 억압에 맞서 외치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일어  
 쉽니다.”

이어 삼척석탄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의 성원기 교수(강원대학교)가 현장 증언을 통해, 삼척 지역의 탈핵, 탈석탄 투쟁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당일 진행되었던 청원소위의 내용을 간략히 전했다. 또한 평창사천교회의 김영현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으며, 기후정의를 위한 즉각적인 회개와 실천을 강조하였다.

예배자들은 ‘그린엑소더스 공동기도문’을 읽으며 예배를 마쳤고, 당일 발표된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의 성명서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하라! : 땅아, 내게 닦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계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욥16:18)”가 낭독되었다. 다음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의 기후정의기도회는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 안전한 세상을 위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

과거 월성 1호기 폐쇄결정 과정에서의 비리가 이제 보도되고, 얼마 전 거대한 공극이 발견된 한빛 4호기의 재가동을 중단해달라는 영광군의원들의 가치분신청은 기각되었다. 우리 국회는 중간·영구처분장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고준위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4월이면 수명을 완료하는 고리2호기를 비롯한 18기의 노후핵발전소들이 10년씩 수명연장 될 예정이다. 문제는 국내뿐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어떻게 해서든 방류하기 위해 주요 7개국(G7) 공동성명에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는 인체·환경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처리 방식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국제사회를 추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마땅한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내외가 핵발전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YWCA를 비롯한 시민사회 역시 움직임을 시작했다.

##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 서명돌입 기자회견

작년 12월 101개의 단체가 모여 발족한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2월 15일(수)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서명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인철 탐장(녹색연합)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는 이수진(한국YWCA연합회 활동가), 김예원(녹색당 공동대표), 임준형(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이현정(정의당 부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특별히 YWCA 이수진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핵발전은 위험을 더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심각해져만 가는 기후재난에 핵발전의 위험까지 가중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명운동본부의 요구는 다음 다섯 가지이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도 중단하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저지하라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법 개정하라

연합회 활동가 10여명을 포함하여 서명운동본부 활동가 30여명은 기자회견 후 흩어져 서울역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핵발전의 위험을 알렸다. 서명운동본부의 소속 단체들은 3월 11일, 후쿠시마 12주기까지 매우 월요일과 금요일 서울역 앞에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

##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서명운동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지역은 바로 국내 부·울·경 지역이다. 2015년 한국YWCA의 10만 서명을 비롯한 범시민운동을 통해 폐쇄되었던 고리1호기를 제외하고도 고리원전 단지에는 고리2, 3, 4호기와 신고리 1, 2호기(부산), 그리고 신고리 3~6호기(울산)를 포함해 모두 9기가 밀집되어 있다. 현재 고리 2, 3, 4호기는 각각 2023년, 24년, 25년에 40년의 수명을 완료하지만, 모두 10년씩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최신기술기준도 적용되지 않고, 중대사고가 반영되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공개하며 한수원은 시민참여가 배제된 공청회를 줄속으로 진행했다.

고리에서 20Km를 벗어나면 해운대가, 30Km에는 부산 서면이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는 부·울·경 주민 380만 명이 거주중이다. 그러나 중대사고 발생 시 동시대비계획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또한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핵발전소지역을 영구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고리2



기후위기 시대, 위험을 심화하는 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함께해주세요

호기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건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부산YWCA를 비롯한 탈핵진영부터 보수단체까지 부산 1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집하여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2월 21일(화) 출범식을 가졌다.

## YWCA 안전한 세상을 위한 핵발전소 폐쇄 서명 캠페인

“아이들에게 생명을”, “이제 그만” 등 익숙하고 신나는 탈핵노래들이 울려 퍼지는 서울역 시계탑 광장 앞에는 파란조끼를 입은 20여 명의 YWCA활동가들이 나타났다. 광명, 부천, 사천, 안산, 인천, 천안YWCA와 연합회 활동가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활동가들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핵발전의 위험을 알리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위해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본 서명 캠페인은 연합회가 함께하고 있는 ‘핵발전소 폐쇄서명운동본부’의 서명과, 부산YWCA가 함께하고 있는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의 서명을 함께 묶어 진행하였다.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3월이 오면 우리 YWCA활동가들은 2011년 3월 11일을 기억한다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핵발전소가 결코

안전하거나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명동성당 앞에서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음을 밝혔다. 또 이 서명을 통해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대통령의 탈핵 선언을 이끌어 내었기에, 핵발전 진흥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이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사천YWCA 강류안 사무총장은 “사천이 위치한 경남 권역은 핵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핵발전소 밀집 지역 세계1위라는 큰 위험도를 안고 있음”을 강조하며 “경남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대도시로 가기 위함이지 이로 인해 더 경남 지역에 더 많은 시설과 용량이 높아지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예지 청년이사는 “좁은 한반도 땅에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핵폐기물 저장소를 만들려면 그곳은 결국 국민들이 희생해야 하는 것”이라며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누군가가 희생해야만 하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요청하였다.

한국YWCA는 서울역을 시작으로 전국의 YWCA활동가들과 함께 다시 힘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서명운동은 다음 QR코드를 통해서도 함께할 수 있다.

# YWCA 재구조화 성과와 미완의 과제들

| 박동순

(사)한국YWCA연합회 국장

## “이권카르텔”, “보조금 유용”, “혈세낭비”,

연일 시민단체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언급되는 표현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SNS에 올렸던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라는 단 12글자에서 시작된 정책이 현실화 되면서 코로나로 위기의 터널을 겨우 벗어난 시민사회단체를 또다시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부터 시민단체 회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sup>1)</sup>의 필요가 강조되었고, 국세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부금통합관리 강화, 기획재정부는 정부보조금사업의 구조 조정을 통한 대폭 삭감을 예고<sup>2)</sup>했다. 이후 감사원 및 각 정부 부처로 감사인력배치<sup>3)</sup>가 되고, 국세청은 각 지방세무서마다 공익법인전담팀을 4~5인 규모로 구성하는 등 시민단체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 및 세무조사 준비가 이어지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여당에서는 시민단체가 정치 편향적으로 활동하며 이전 정부와 밀착해 정부 예산을 부당하게 받아온 것처럼 시민단체보조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sup>4)</sup>하며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연일 쏟아내었고, 설새없이 시민단체 관련 보도가 보도되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반대운동을 했던 여성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세무조사<sup>5)</sup>가 급작스럽게 시작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현장 점검<sup>6)</sup>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권반대집회에 참석했던 청소년단체를 직권말소처리<sup>7)</sup>하는 일도 벌어졌다. 작년 한

국YWCA연합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을 확인하던 중 이미 20여 년전 해산된 밀양YWCA, 증평YWCA, 김천YWCA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직권말소를 공문으로 요구했으나 직권말소 지침이 명확하지 않자며 공문접수조차 거부해 말소하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렸던 것과 대조되는 신속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 근거 없는 정부보조금 규모 부풀리기와

###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 여론 확대

정부는 시민단체보조금전수조사결과 전 정부에서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퍼줬다며<sup>8)</sup> 이권카르텔<sup>9)</sup>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강도 높은 전수조사<sup>10)</sup>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시민단체들은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 국세청, 감사원으로부터 보조금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미 지자체에 보고했던 지난 3년간의 회계 정산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대응하느라 본연의 시민운동, 공익활동에 눈을 돌릴 수 없을 지경이다.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 22조원의 규모로 보조금이 지원되었다는 세부적인 근거는 보도되지 않았다. 민간에 지원된 정부보조금의 전체 규모는 시민단체의 지원뿐 아니라 기업, 복지시설을 포함한 예산을 모두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역없이 모두 시민단체가 보조



2022년 9월 21일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상임이사가 대표발언하고 있다.

금을 지원받아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 조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고도화된 보조금관리체계,

### 부정집행이 있었다면 행정의 관리감독부실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법정단체를 제외하고 사업비에 국한된다. 일부 위탁 지정사업을 제외하고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프로젝트성 공모사업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보조금 사업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공익적 과제 중에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관료 조직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시민참여형으로 효과적 문제해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부가 공모신청을 받고 심사하여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성과가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평가를 통해 지원이 중단되기도 한다.

회원YWCA에서 활동할 때의 일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의회가 새로이 구성되면 내용은 모르는 채 의욕만 앞서는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온갖 자료제출요구가 몰려오곤 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되면 국회에서까지 자료요청이 오기도 한다. YWCA의 지역사회신뢰유지를 위해 더 철저하게 증빙서류로 입증해내야했고, 시민세금인 보조금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미 보고했던 것이어도, 같은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재편집하는것

이어도, ‘지금당장’ 달라는 무례한 요구여도 얼마를 지원받았건 보조금은 그런 돈이었다.

정부보조금은 실시간으로 모든 회계영수증과 증빙서류들을 일일이 스캔해서 보조금시스템에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어 시스템상 정부의 일상감사가 가능하다. 모든 지출은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 카드로만 사용하고 구입한 물품과 집행된 내용은 간식까지도 모두 사진을 찍어 증빙을 올려야만 할 정도로 철저한 관리 하에 행정시스템이 고도화되었다. 만일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회계부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행정부서의 관리감독 부실이 함께 지적되어야 할 문제이다. 과연 시민단체의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고 외치는 정치권과 언론은 이러한 집행과 보고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이중삼중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보조금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까 의문스럽다.

## 정부보조금사업, YWCA의 핵심주력운동인지

### 다시 돌아봐야

부속시설을 중심으로 정부 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민간단체가 어느새 정부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정부보조사업은 민간의 자율성보다는 관 주도 행정의 세포말단이 된 것처럼 수많은 지침과 관여에 있는 상황이다. ‘웬스톱 서비스’라는 미명하에 민간이 쌓아왔던 성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정부 기관으로

1) 제2 윤미향 사태' 방지.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내역 공개" 중앙일보, 2022년 4월 29일 [2022 국감] 국세청의 정부코드 맞추기...인수위에 시민단체 표적감사 보고, 조세금융신문, 2022년 10월 12일 2) 정부, 500개 보조금 사업 절반 이상 '손본다'...재정 구조 조정 본격화, 한국일보, 2022년 5월 29일 3) "정의연 사태 막자" 보조금 사업 터는 감사원 '에이스' 투입 중앙일보, 2022년 8월 8일 4) 권성동 "시민단체, 민주당 정치예비군 전략" -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SBS 뉴스 · 2022년 8월 16일 5) 국세청 '여가부 폐지' 비판한 여성단체 현장조사 통보, 경향신문, 2022년 11월 11일 6) 정부 "회원명부 제출하라" 시민단체 "길들이기 의도", 국제신문, 2023년 01월 03일 7) '윤석열 퇴진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도 환수', 뉴시스, 2022년 12월 27일 8) 22조 원 민간단체에 퍼졌다... 대통령실 '文정부 5년' 전수조사, 뉴데일리, 2022년 12월 28일 9)尹 '혈세, 이권 카르텔에 쓰이면 안 돼'...시민단체 정조준, YTN, 2022년 12월 28일 10) 막 오른 '보조금 수술'...전부처에 '점검TF' 만든다, 아시아경제, 2023년 01월 17일

급격히 흡수되고 있고, 다양한 시민서비스 수요에 맞게 마을단위 지역단위, 서비스의 전문성에 맞춰 시민밀착 행정을 진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효율화가 우선시되어 광역화·집중화 되고 있다.

YWCA 재구조화 기간동안 연합회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도 정부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회원YWCA 대면교육을 진행했다. 유일한 대면교육이었던 재구조화교육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공익 조직의 설립 시 약속하고 허가 받은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할 책무, 변화되는 제도와 지침에 맞게 회계가 처리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어야 하는 의무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강조했다.

또한, 비영리조직에서 보조금 수입은 총액의 10-50%까지 매칭으로 민간에서 자부담분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지출사업이며, 회계상 나타나지 않는 활동가들의 시간에 비례한 인건비 투자를 생각하면 정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체 투자가 있는 사업구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보조금 비율이 높을수록 관(官)과의 거리두기가 어려워지고 견제의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회비와 기부금의 모집이 더 어려워진다.

###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단체, 회계감사 의무제도 추진 보조금 비중을 낮추고 YWCA 자체사업 비중을 늘려야

이미 많은 회원YWCA의 사업에서 보조금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갑작스레 사업구조의 변화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YWCA 자체 예산과 인력, 회원 활동을 기반으로 한 목적사업을 확대하고,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사업 실행보다 더 많은 감사와 과다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인 민간단체의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는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YWCA가 사업의 기초를 세웠다 하더라도 더 이상 회원 운동, 사회변화운동의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되어 정부지침에 맞게 수행하는 업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YWCA가 주력해야 할 핵심운동인지 냉정히 살펴보고 YWCA 본연의 운동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해야 할 때이다.

### 회원YWCA 재구조화 미완의 과제

회원YWCA 재구조화는 절반 이상 완료되었지만, 외피를 바꾸었을 뿐 우리에게서 우리 내부를 다져야 할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연합회는 신속하게 보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했지만, 회원YWCA는 조직의 형식의 변경만 이룬 상태이다. 연합회는 법적 책무중심의 법인이사회, 목적 중심의 위원회 구조로 개편하고 다양한 실험중이므로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회원YWCA 또한 급변하는 위기의 시대에 풍량에 맞서기 위해 보다 간결한 의사결정 구조, 다양한 회원들을 대변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하는 재구조화 2단계 내부구조 개편, 지역운동 중심, 목적운동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과 준비의 과제가 남아있다. 법인화 비법인사단화는 책임있는 지역운동이 가능한 회원YWCA가 되기 위한 시작일 뿐이었다.

계절은 봄을 향해 있지만, 시민단체에게는 겨울이 다가온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내부 근육과 지방을 키워야 할 때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제 펼쳐놓은 가지들을 정리하고 YWCA의 본연의 줄기를 튼튼히 하는 기회로 내부를 돌아보며 구조와 사명과 목적에 더욱 집중하고, 100주년의 무게에 합당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시민단체의 표본으로 YWCA가 자리하기를 기대해 본다. 

## 기자회견문

###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선언 |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지금 행동에 나서자

한반도에서 3년간 이어진 참혹한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올해로 70년을 맞는다. 지난 70년은 잠정적인 휴전 상태였을 뿐 결코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었다.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 끝나지 않는 적대와 군사적 긴장, 그리고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이용하고 부추기는 내외의 도전들로 인해 한반도를 더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은 크나큰 고통과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남북 정상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북미 정상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에 대해 합의했을 때, 한반도의 주민들은 우리를 짓눌러온 긴장과 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가 열릴 수 있으리라는 한 가닥 강렬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하지만 남북 북미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으로 대화는 중단되었고,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되며 지금 한반도는 더 큰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그대로 유지되지 확실하다. 우발적인 충돌이 핵 전쟁의 참화로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존재들을 옥죄고 있다.

남북 북미 사이의 대화 채널은 모두 끊긴 상태다. 국제 환경도 우리를 제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가 국제적 수준의 군사적 긴장과 신냉전 대결의 대리 전장으로 이용되고 휘둘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며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천명하고 군사훈련 규모를 대거 확장하여 마치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해왔다. 하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만 키워왔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실질화하겠다고 미국 대중국 전략에 편승하고 한국을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에 종속시키는 것을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핵 군비 경쟁과 핵 전쟁 위험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힘을 통한 압박이 가져온 결과는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상호 무력시위의 반복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게 입증한 것은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가져올 아무런 현실적인 수단도, 역량도 없다는 것뿐이다.

아직 충돌과 파국을 막을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대화와 협상의 기회도 여전히 남아 있다.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하고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상응하는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기를 망설였기 때문이지, 무력시위를 덜 한 탓이 결코 아니다. 무력 충돌로 치닫는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보다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향한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으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오늘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며 우리는 요구한다.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가 합의한대로 관계 개선에 즉각, 신실하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70년 동안 지속되어온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평화로 가는 대화의 길을 열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냉전적 대결을 가져올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추고 대신 한반도와 아시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협력의 질서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제발, 파괴적인 군비 경쟁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다. 국내 시군구 200곳과 해외 100곳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각계각층 시민들의 평화선언과 연대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한반도와 아시아의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추기 위한 행동에 힘쓸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는 올해 7월,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는 온 겨레, 전세계 평화 세력들의 목소리가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일제히 울려 퍼지도록 우리의 행동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외치면 평화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함께 나서자.

2023년 2월 14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참여 단체 일동 (총 763개)

|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 기자회견 |

기후위기 대응의 관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

2/14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오늘 2023년 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9월 30일 청원인 5만 명의 동의로 산자위로 회부된 청원이 이제야 첫 번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 동안 거대 여야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탈석탄법에 대한 이번 청원을 줄곧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이 크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서 여야는 더이상 그들의 익숙한 정치적 셈법과 관성으로만 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탈석탄법 제정을 외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섰다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상식적인 요구이고 국회 여야가 더이상 외면할 명분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의 채택,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만약 국회가 정말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인 화석연료산업을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 마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탈석탄법연대는 5만 국민청원을 입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직접 성안하여 국회에 제안하였다.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이 그것이다. 날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지금도 삼척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오늘 청원소위를 시작으로 국회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입법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동안 수 많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래 왔듯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함으로써 여야가 기후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산자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결의하라!
- 국회는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23년 2월 14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서울캠페인 |

핵발전을 멈추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766회.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와 고장의 횡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이 숫자만 보더라도 일 년에 약 20회 정도의 사고와 고장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는 기계결함과 같은 설비 문제를 비롯해 운영비리와 부실공사 등 인재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핵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을 위험으로 막는 것입니다.

167원. 핵발전의 발전 단가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라자드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의 평균 발전 단가는 1메가와트시(MWh)당 36달러로 2009년 359달러보다 90%나 저렴해졌습니다. 풍력도 135달러에서 38달러로 72%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의 발전단가는 167달러로 같은 기간 36%가 올랐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핵발전이 값싼 에너지라는 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64가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위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른해 봄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은 무려 64가지나 되며, 이로 인해 전 세계 바다는 방사능에 오염됩니다.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인근 바다에서 고방사능에 피폭된 해양생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33회. 태풍과 호우, 산불 등.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국내 핵발전소는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이미 25차례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유입된 해양생물이 핵발전소 배수구를 막은 탓에 가동을 멈춘 사례도 무려 8회나 됩니다. 지난 해 삼척과 동해의 큰 산불은 울진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뿐이 아닙니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은 핵강국 프랑스의 핵발전소 절반을 멈추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상 기후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확대한 핵발전이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 더 위험하고 불안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무려 18기나 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핵발전소 안전에 더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나 방법이 없으니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 시설을 만들어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40년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은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간 핵발전이나 핵폐기물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핵발전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후재난에 취약하고, 지역의 회생을 강요하는 부정의한 에너지입니다.

오는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핵사고가 벌어진 지 12년이 됩니다. 후쿠시마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해 주십시오. 핵발전을 멈추고 위험한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일은 몇몇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핵발전을 멈추는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101개 단체가 함께하는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는 앞으로 핵발전의 위험과 부정의함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누군가의 회생을 강요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원하는 시민들의 이름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도 중단하라
-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지지하라
-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법 개정하라

2023년 2월 15일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2023 신년예배



2023년 한국YWCA연합회 신년예배가 1월 4일(수) 오전 11시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신년예배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직전 총회장으로 헌신한 김은경 목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45절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2023년 신년예배는 다시 100년의 항해를 시작하는 한국YWCA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다짐하는 시간으로 함께했다. 매년 멋진 시로 함께해주는 김재화 명예연합위원장께서 지어주신 시는 차경애 명예연합위원께서 낭송하였다.

2023년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총회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총회가 1월 7일(토) 오후 2시에 대학·청년Y 회원과 담당 실무활동가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여는 예배, 아이스브레이킹(김현진 회원), 연합회 청년이사 영상 응원에 이어 조은지 연합회 청년부회장이 '한국Y 100년 속 청년'이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을 하였다. 2022년도 지역별 활동보고, 기획국장 선출(이예림 회원), 2023년도 운동주제 '기후위기, 청년이 답하다' 결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YWCA역사관을 관람하고 총회를 마쳤다.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한국YWCA가 함께하고 있는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과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는 올해 정전 70년을 맞이하여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1월 10일(화) 오전 10시,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를 개최했다. 발언자로 참석한 원영희 연합회 회장은, 전쟁에는 절대 승자가 없으며 전쟁을 야기하는 행위로는 한반도에서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호소하며 2023년을 한반도 평화 원년의 해로 바꿔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를 밝히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자극적 군사 행동을 멈추며 평화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

소협 이사정책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정책협의회가 2023년 1월 12일(목)~13일(금)까지 1박 2일 동안 강화도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열렸다. 소협 12개 단체 이사, 실행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협의회는 김주현 전 현대경제연구원장의 2023년 경제사회 전망 특강을 시작으로 소비자운동 회고와 전망, 소비자운동과 소협의 역할, 소협의 업무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 2023년 소비

자 아젠다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의 시간이 이어졌다. 한국 소협은 2023년 운동 아젠다로 디지털시대 소비자주권확보,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자 운동,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 소비자안전성 강화, 소비자역량강화로 정하고 이에 대해 운동을 함께 펼쳐가기로 했다.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정치관계법 개정추구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 간담회



1월 12일(목) 국회에서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주최, 한국여성의정 후원으로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추구 여성공동행동-국회 정개특위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는 2024년 총선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남녀동등참여 달성을 위해 정치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개정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됐다.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연대단체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대표와 국회 정개특위위원회 남민순 위원장, 심상정 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은 향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확장해 나갈 것이며,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17쪽)

2023 Y-틴 전국협의회



1월 13일(금)-14일(토) 2023 Y-틴 전국협의회가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19개 지역 회원YWCA 대표 청소년 37명이 참가하였으며, 본 행사에서 Y-틴은 2023년 중점 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기후와 인권', '생명평화' 두 가지 주제로 직접 강연하고, 로고 만들기, 4행시 짓기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2023년 중점운동의 주제는 '기후와 인권'으로 슬로건은 '500만년의 세월, 2050년 한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로 선정되었으며, Y-틴 중앙임원회 회장으로는 전주Y의 신민서 회원이, 총무로는 대전Y의 김민선 회원이 선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8쪽)

김필레기념사업회 총회



제23차 김필레 선생 기념사업회 정기총회가 2023년 1월 16일(월) 오후 1시 30분 정신여중고 김마리아회관에서 열렸다. YWCA, 여전도회, 정신여중고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회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회의는 대면회의로는 4년 만에 개최되어 2023년의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총회에서는 2023년에 김필레 리더십캠프 재계와 추모예배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연지동 구교사 세브란스관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결정하였다.

후원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판결에 대한 탄원서 제출

후원회비에 대한 기부금품법 적용 판결에 대한 대법원 선고(2.2목)를 앞두고 연합회는 선고 결과에 따라 후원회원의 회비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되면 회원YWCA에 미칠 영향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1월 20일(금)-25일(수) 5일간 회원YWCA에 긴급하게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연명을 요청하였고 전국 52개 모든 회원YWCA에서 연합회로 탄원서를 보내주었다. 연합회와 52개 회원YWCA의 탄원서는 타 단체들의 탄원서와 함께 '한국YWCA연합회 외 97개 단체'로 1월 26일자로 대법원에 접수하였다. 2월 2일(목) 대법원 판결 결과, 원심 파기 환송되어 승소하였고 결론적으로 후원회원의 회비는 기부금품법

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RE100팀 국회 앞 탈석탄법 제정 촉구 릴레이 피켓팅



작년 9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청원소위를 열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는 응답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도 함께 하고 있는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는 매일 국회 앞에서 청원소위개최를 위한 릴레이 피켓팅을 개진하였다. 또한 피켓팅에 참가하는 활동가의 인터뷰를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연합회는 1월 31일(화) 피켓팅을 맡아 청(소)년, 여성, 취약계층 등 기후재난 당사자의 입장에서 탈석탄법제정을 촉구하였다. 인터뷰 영상은 하마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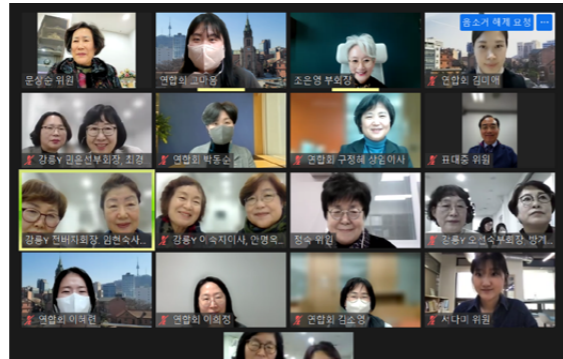
2022 키다리학교 활동 나눔



2월 11일(토) '2022 키다리학교 활동나눔' 행사가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2022년 키다리학교의 활동을 정리하고 나누는 행사로, 2022년 키다리학교를 운영한 대전, 부산, 목포, 순천, 창원, 청주 6개 회원YWCA 키다

리 대표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본 행사에서 키다리 대표 청소년들은 '평화'와 '기후'라는 주제 아래 자신들의 활동상황을 공유하였고, 특별히 창원Y와 청주Y에서는 각각 2022년 창원Y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평화 보드게임'과 청주Y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기후올동챌린지'를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한편 키다리학교는 2022년에 10주년을 맞이하였고, 2023년에는 더 많은 키다리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32쪽)

2023년 1분기 지역법인승인신청 회원Y 온라인간담회



2023년 1분기에 지역법인승인을 신청한 6개 회원YWCA(원주, 남양주, 강릉, 하남, 성남, 춘천)를 대상으로 2월 13일(월), 2월 14일(화) 양일간 지역법인승인 온라인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연합회 지역법인승인지원TF 위원과 회원Y 이사가 함께 법인이사의 책무성, 본부의 지역운동성 및 법인운영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회원Y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재구조화 실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구조화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마지막 지역법인 승인신청 시기는 2023년 2분기이며, 신청 마감일은 4월 3일(월)이다.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



한국YWCA를 비롯하여 국내외 763개 단체들은 2월 14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대회를 가졌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End the Korean War, Let Us Peace!'라는 슬로건 아래 1)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2)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3) 국내 200개 시군구를 비롯한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 4) 7월 22일(토) 대구모 평화 집회와 행진 5) 7월 27일(목) 국제대회 6) 8월 15일에 즈음한 대규모 평화대회 등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22쪽)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기후정의기도회



한국YWCA연합회가 연대하고 있는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에서 2월 14일(화) 새해 첫 분기의 기도회를 진행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정의 기도회'의 이름으로 국회 앞에서 저녁 7시에 시작되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제목으로 평창 사천교회의 김영현 목사가 설교했고, 연합회 시민운동국 홍수진 부장이 기도를 맡았다. 또한 포스코 블루파워 석탄발전소를 저지하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성원기 교수(강원대학교)가 함께 참석하여 삼척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당일 국회에서 진행될 청원소위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다. 이날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기후부정의와 재난 앞에서 탈석탄은 당연한 선택임을 밝히고, 국회의 진정성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 서울캠페인

지난 12월 발족한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의 캠페인 개진 기자회견이 2월 15일 서울역에서 진행되었다. 한국YWCA연합회를 포함한 운동본부 소속 101개 단체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도 중단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저지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법 개정이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연합회 이수진 간사가 발언하여 '청년들에게 핵발전의 위험을 떠넘기는 부정을 멈출 것'을 요구하였고, 김예원(녹색당 공동대표), 임준형(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이현정(정의당 부대표)가 각각 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운동본부는 3월 11일(토) 후쿠시마 12주기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서울역에서 서명캠페인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38쪽)

2023 YWCA 신입회장교육




2023 YWCA 신입회장교육이 2월 22일(수)~23일(목) 연합회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23년도 회원Y 신입회장을 대상으로 주제강연 '예큐메니칼 기독교신앙과 YWCA의 사명'(장운재 이화여대 교수), 'YWCA 회장의 사명'(원영희 연합회 회장), '2023년 YWCA 운영 및 운동정책'(구정혜 연합회 사무총장), 'YWCA 재구조화'(박동순 연합회 국장), '비영리 거버넌스와 회장 리더십'(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장 네트워크 및 다짐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운재 교수는 주제강연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YWCA가 예큐메니칼 기독교시민운동체로서 YWCA의 소명에 응답해야 함'을 강조하였

다. 회원YWCA가 지역운동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회장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37쪽)

### 2023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새문안교회에서 2023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52개 회원YWCA 대표를 비롯하여 연합회 직무상대표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문안교회 이상학 담임 목사의 설교로 개회예배를 드렸으며, (사)한국YWCA연합회 법인이사 보선, 회원YWCA 분담금 정책, 회원YWCA 관련 규정 개정, 2023년 (사)한국YWCA연합회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안건을 처리하였다. 정기총회 참석자들은



YWCA가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2023년에도 한국과 지역사회에 희망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힘쓸 것을 결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6쪽) 

### YWCA 1922 장학금 모금 현황(농협 301-1922-0000-31)

(2023. 1. 1 ~ 2023. 2. 15)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고이나, 구정혜, 김병찬/임정임, 신성균, 안정희, 이주영	110,000
기타	바자회 수입	72,000
합계		182,000

###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농협 301-0161-5540-11)

(2023. 1. 1 ~ 2023. 2. 15)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강승아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은택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나척더르즈돌람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문병식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지영 박진화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송인호 신명자 신인숙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연규 이영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찬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최수산나 최지영 하만성 하은경 하지원 한영수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1,610,000
합계		1,610,000

### 연합회 인사 동정

- 동정** 박윤애 이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취임 - 2022.11
- 채용** 윤수정 YWCA복지사업단 은학의집 관장 - 2023. 2. 1.
- 승진** 박진화 기획조정국 인사팀 부장 - 2023. 1. 1. 정서연 지역협력교육국 아카데미팀 부장 - 2023. 1. 1. 홍수진 시민운동국 협력사업팀 부장 - 2023. 1. 1.

## 경인·강원권역

### 강릉YWCA

최경선 간사

#### 강릉YWCA 성탄 예배와 회원대회



12월 19일(월) 비전홀에서 1부 성탄 예배, 2부 회원대회가 개최되었다. 영상으로 홍윤주 목사(우크라이나 선교사)의 말씀 선포로 성탄 예배가 진행되었고, 2부 회원대회는 방계자 회장의 개회선언과 임현숙 사무총장의 회원보고,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체험으로 마무리 되었다. 자원활동가와 회원,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와 회원대회를 통하여 2022년 회원운동에 동참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동해YWCA

정미숙 팀장

#### 2023년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및 캠페인 실시



1월 19일(목) 오전 11시 동쪽바다중앙시장 커뮤니티 광장에서 지역 물가 안정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물가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래시장에서의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여, 물가 안정 동참 유도 및 홍보, 시민들과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 시장바구니를 배포했다. 시민들에게는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과 지역 상인들에게는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 (사)서울Y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서울YWCA는 12월 9일(금) 승동교회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부 기념예배에서는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담임)가 '선 밖에 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장운재 목사(서울Y 고문·이화여대 교목)가 축도했다. 윤유선 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념식은 기념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 감사패 표창, 모금캠페인 결과 보고, 축하연주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감사패는 영성·운동성·지속가능성 3개 부문에서 서울Y와 함께 생명살림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 온, 총 10명(팀)에게 수여됐다.

### 속초YWCA

김다미 간사

#### 속초YWCA 창립 36주년 기념행사



12월 2일(금) 오후 2시, 속초YWCA는 창립 36주년을 맞이하여 4층 강당에서 참사랑교회 김경하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어 진행된 창립기념행사(EM발효액 1.8L 280개, 무료나눔)는 오후 3시부터 EM발효액 소진 시까지 진행됐다. 속초YWCA는 지역사회에 책임성을 가진 시민운동 조직체로서 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환경운동, 청소년운동 등을 펼쳐 나가고 있다.

원주YWCA

양지영 간사

원주YWCA 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제12회 원주YWCA 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가 12월 15일(목) 오후 7시 원주문화원 공연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사랑의 속삭임 같은 음악 속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김태영 단장의 인사말과 원주YWCA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 단원들은 하나된 화음으로 즐거운 연주회를 꾸몄다. 비바체앙상블과 카르페디엠이 게스트로 참석하여 함께 자리를 빛내 주었다.

(사)인천YWCA

서순아 팀장

2022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기부금 전달식



2022년 한 해 동안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운영을 해 조성한 기부금 4백여 만원을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기부금 전달식'이 12월 26일(월)에 진행되었다. 2005년부터 진행되어온 나눔장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총 6회의 나눔 장터를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었다.

춘천YWCA

이지연 간사

춘천YWCA 성탄 예배 및 워크숍

춘천YWCA는 12월 8일(목) 오후 5시에 이사 13명과 본부직원 및 부속시설인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춘천YWCA어린이집 전



직원이 참석하여 성탄 예배 및 전 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미경 회장의 사회로 성탄 예배는 황중운 목사(춘천광장교회)의 기도 및 '스티그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축도로 1부 감사예배가 마무리되었다. 2부는 춘천YWCA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특송을 시작으로 이미경 회장 및 이선엽 사무총장의 감사인사와 앞으로를 향한 다짐을 전했다. 이어 기관 교류의 장을 만들어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춘천YWCA의 모든 실무활동가,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경기권역

(사)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2023년 신년예배 'Y여,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사)고양YWCA는 1월 2일(월) 이사·활동가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년예배를 드렸다. 이진아 목사(나들목일산교회)가 'Y여,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YWCA가 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YWCA 활동의 원천인 진리를 기반으로 한 사랑의 힘으로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다. 예배 후 무드등과 화분박스를 만들면서 서로에게 새해 격려의 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광명YWCA 성탄 예배 및 나눔과 친교

12월 19일(월) 광명YWCA는 성탄절 기념 '성탄 축하 예배'와 2



부에서는 회원 간의 나눔과 친목의 자리를 가졌다. 이승봉 목사(한울림교회)의 '함께 가난해지는 세상을 꿈꾸며'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낮은 곳으로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팬데믹 이후 첫 대면 성탄 예배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며 새로운 광명YWCA를 소망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남양주 YWCA 신년예배



남양주 YWCA에서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2일(월) 별빛지역아동센터에서 신년 기도회를 진행하였다. '한국YWCA의 미래를 위한 95개 논제'를 함께 나누고 YWCA의 목적문과 활동가의 자세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는 공동체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실천하는 활동가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YWCA

임행심 사무총장

부천YWCA 제26회 정기총회

2월 1일(수) 부천YWCA 제26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최순영 회장은 총회사를 통해 2023년은 부천YWCA 법인전환의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있는 임원이 선출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다. 이후 2022년 사업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안 등이 통



과되고 전 회원들의 동의로 부천YWCA 법인전환이 승인되었다. 신임이사와 공천위원 인준에 이어 박행우 부회장이 제14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정기총회에서 모든 회원들은 새로운 부천YWCA의 출발을 기대하며 그동안 헌신한 최순영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행우 회장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으며 회장 이취임식을 마지막으로 제26회 정기총회가 폐회되었다.

성남YWCA

임은희 간사

성남YWCA와 부속시설 신년 예배 및 인사



성남YWCA는 1월 2일(월)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본부와 부속시설인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YWCA돌봄과살림협동조합, 성남YWCA어린이집 원장님과 이사님들이 함께 신년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다. 예배를 드린 후, 함께 떡을 나누고 교제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다.

(사)수원YWCA

강은진 책임간사

(사)수원YWCA 2023년 정기총회

(사)수원YWCA 2023년 정기총회가 1월 19일(목)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 개회예배는 김경희 이사의 인도와 황진희 이사의 기도로 진행했으며, 외플학당에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의 악기 연주와 축하 공연이 있었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수원시 성별영향평가 우수사업 시상과 함



계 10년 근속상, 20년 근속상, 자원활동가 봉사상, 대학청년Y 봉사상을 총 20명에게 시상했다. 이어 2022년 감사 및 결산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임원선출, 공천위원 선출 등이 있었다.

**(사)안산YWCA** 홍지인 팀장

**시화호 대송습지 철새 탐조여행**



12월 14일(수) (사)안산YWCA는 회원 20여 명과 함께 '시화호 대송습지 철새 탐조여행'을 다녀왔다. 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 지지네이처와 시화호생명지킴이 해설사의 생태안내를 통해 습지의 중요성을 배우고, 대송습지의 다양한 겨울철새를 만나는 회원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노랑부리저어새, 황새, 흑고니, 바다비오리, 청둥오리, 흰꼬리수리 등 다양한 철새를 전문적인 탐조장비를 통해 자세히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문찬미 간사

**(사)안양YWCA 성탄 예배**

(사)안양YWCA는 12월 13일(화) '함께, 평화를 만들어갑시다'라는 주제로 이사와 실무활동가 20여 명이 성탄 예배를 드렸다. 나누고 맞았던 모든 것들을 화해케 하고 회복케 하는 촛불 점화식을 하고 봉헌한 기금은 북한어린이돕기 및 통일씨앗으로 적립 후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탄 발표로 기쁨을 함께 나



누고 2023년 소망제목을 적어 트리에 걸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의정부YWCA 창립총회**



의정부YWCA는 1월 31(화) 오후 3시, 의정부YWCA 회관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한국YWCA 원영희 회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임시의장으로 김효숙 회장이 선출되어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을 하였다. 사단법인 의정부YWCA의 설립취지문 채택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다. 법인을 이끌어 갈 회장으로서는 신선화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창립 발기인으로 참석한 11명의 이사를 법인 이사로 선출하고 오명화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출하였다. 사단법인 출연재산에 관하여 정진아 사무총장이 설명하고 2023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총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로 신, 구 회장 2분이 선출된 후 창립총회를 마무리하였다.

**하남YWCA** 김예진 간사

**하남YWCA 창립 31주년 기념 사랑의 일일차집**

12월 13일(화)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카페투움에서 창립 31주년 기념 사랑의 일일차집을 열었다. 일일차집은 하남YWCA의 연중행사로서 차와 함께 후원받은 의류와 직접 담근 유자청과 양갱, 떡국 떡, EM물품 등이 판매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



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지역사회의 회원과 시민들이 하남Y를 통해 미리 구매한 티켓을 가지고 준비된 물품을 구매하였다. 수익금은 하남YWCA 사업기금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며 이번 차집의 수익금 중 100만원은 소망의 집과 목회자 가정 대학생 자녀에게 전달하였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조은숙 주임

**가족이 함께하는 탄소Zero 환경놀이터**



(사)논산YWCA는 12월 3일(토)와 12월 16일(금) 오전 9시 논산시 국민체육센터와 국방대학교 계백관에서 탄소중립 생활백서 '탄소Zero 환경놀이터'를 진행하였다. 아동과 가족 280여 명이 참석하여 탄소중립 생활밀착 실천을 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을 놀이기구로 활용하고 '환경기후 가족 OX', '거리의 청소부 분리수거 달인', '최고의 환경미화원' 이라는 간접체험 역할로 탄소중립의 이해와 환경감시자의 시각으로 보는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해 보았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20주년 기념식**



1월 17일(화) (사)대전YWCA 4층 대강당에서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청소년위원회 류춘지 위원장의 사회로 1부 기념예배가 시작되었으며, 사랑교회 김중형 목사님의 '새 포도주는 새 주머니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다. 2부 기념식은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오대근 팀장의 사회로 활동영상과 경과 보고, 정혜원 회장의 환영사와 김광신 중구청장, 윤양수 중구의회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은 1993년 대전YWCA '청소년 수련실'로 시작되어 2003년 2월 12일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으로 정식 개관하여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제천YWCA 후원금 전달식**



제천YWCA는 12월 8일(목) 국제로타리3740지구 8지역 제천금붕이로타리클럽(회장 박화자)과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축협약에 따라 제천YWCA 프로그램실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제천YWCA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찾아 봉사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중간 역할을 수행하고, 제천금붕이로타리클럽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과 다양한 연계활동 및 협업을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지역 성장에 앞장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번 후원금은

2021년도에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어르신 3가정을 선정하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1월에 난방유로 지급하였다.

**천안YWCA** 곽효정 팀장

**천안YWCA 2022 설 특별 전 '착한 소비 운동'**



천안YWCA에서는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지역특산물 등 착한소비운동을 진행하였다. 지역 영농조합 제품, 친환경 제품 등으로 품목을 구성하여 직거래 장터, 비대면 '착한 소비 운동'으로 선주문 후배포 형식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나눔 운동을 실시하였다. 천안YWCA는 앞으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주민들과 깊이 소통하는 생명사랑 공동체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청주YWCA** 이드림 간사

**'성평등한 우리마을 반상회' 정책 제안 간담회**



12월 23일(금) '성평등한 우리마을 반상회' 정책제안 간담회가 (사)청주YWCA에서 지역 내 관계자 15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사)청주YWCA는 2022년 충북도 양성평등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시민공감형 성평등마을 정책 발굴을 통한 정책제안 개발을 위해 청주시민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 수요 조사 자료집을 만들었다. 성평등한 마을을 위한 정책 수요 조사 자료집을 토대로 청주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요구 및

필요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충주YWCA** 김성화 간사

**충주YWCA 창립 37주년 감사 및 성탄 예배**



12월 20일(화) 오후 2시, 충주YWCA회관 4층에서 회원 50여 명이 모여 창립 37주년 기념 및 성탄 감사예배를 드렸다. 구세군남충주교회의 서준백 사관의 '그 영광을 나타낼 자리'는 주제의 말씀과 충주YWCA 합창단과 찬무단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 예배 후에는 창립멤버이자 3-5대 회장을 역임하신 조오상 증경회장의 충주YWCA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의 충주YWCA를 축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경상권역**

**거제YWCA** 정의인 간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큰 소리로 말해요! 함께 웃어요.'**



거제시가족센터(센터장 하성영)에서는 지역 내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

게 적절한 촉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업이다. 하성영 센터장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길 바라며, 자녀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언어발달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하였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사단법인 김해YWCA 창립**



1월 31일(화) 오후 2시 김해YWCA 강당에서 제32회 김해YWCA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신광열 목사(김해기독교연합회장)의 "네 떡을 물 위에"라는 주제 말씀을 시작으로 1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해YWCA 법인 전환을 승인받아 2부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사단법인 발기인 대표 김영미 회원의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서춘화 임시의장이 선출되었고 12명의 임원과 감사, 사단법인 회장으로 김혜진 회장이 선출되었다.

**(사)대구YWCA** 김은혜 간사

**(사)대구YWCA 성탄 축하예배**



(사)대구YWCA는 12월 22일(목) 오후 6시 30분, 6층 강당에서 성탄 축하예배를 드렸다. 본부를 비롯한 6개 부속 시설과 대구YWCA를 빛내주시는 많은 회원 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디에 계신가요?"라는 제목으로 박창운 목사(제일교회)가 말씀을 전했고, 예배 후 2부는 베스트 드레서 시상식, 경일여중 Y틴 밴드 동아리 공연, 크리스

마스 디퓨저 만들기 등 다양하고 풍성한 순서들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산YWCA** 강현영 간사

**마산YWCA 송년의 밤**



12월 9일(금) 마산 뷔페파크에서 마산YWCA 송년의 밤이 열렸다. 실무자와 자원활동가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명자 회장의 예배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김경애 명예이사의 기도, 박규원 목사(열림교회)의 말씀, 장은경 이사의 바이올린 찬양으로 꾸러졌다. 이어 박규원 목사(열림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존재'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와 축도로 1부 예배가 마무리되었다. 2부 행사에서는 이효진 이사가 직접 준비해온 다양한 프로그램의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여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사)부산YWCA** 신정은 간사

**(사)부산YWCA 2022 회원성탄제**



2022 회원성탄제가 12월 13일(화) 오후 4시, (사)부산YWCA 3층 강당에서 열렸다. '평화의 왕이여 어서 오소서-전쟁과 분단을 넘어 평화로!'라는 주제로 함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말씀(밝은빛명광교회 고명식 목사)으로 성탄 예배가 진행되었다. 성탄

축하 성탄 플라마켓, 행운권 추첨, 부설어린이집 숲종달새반의 부채춤, 쿠네쿠네 클라리넷 트리오 연주, 권의성 오카리나 연주 등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천YWCA** 송주은 간사  
**사천YWCA 정기총회·사단법인 창립총회**



사천YWCA는 1월 31일 오전 10시 사천YWCA 강당에서 발기인과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었다. 사천YWCA는 1988년 창립 이후 지난 35년 동안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지부로 있었으며 이번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독립된 법인의 지위를 갖추게 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사천YWCA는 구영화 회장을 사단법인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제 17대·18대 회장 이취임식 이후 부회장단 등 임원직 선출, 설립 취지문 채택,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안동YWCA** 남수정 부장  
**찾아가는 어린이 양성평등교육**



안동YWCA에서는 12월 9일(금) 안동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양성평등

교육은 1차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2차는 역할극 해보기, 3차는 '우리가 만드는 양성평등한 세상'이란 주제로 총 3회에 진행되는 수업이다.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은 활동가들이 연구모임과 주제선택을 통해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학교나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다. 3회의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가정으로 돌아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가족캠페인에도 함께 참여하였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사)울산YWCA 성탄 예배 및 한사랑 축제**



12월 15일(수) (사)울산YWCA 2층 강당에서 2022년 성탄 예배 및 한사랑축제가 열렸다. 최현미 이사의 인도로 시작된 성탄 예배는 박용남 목사(더사랑교회)가 '내가 너를 세우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YWCA여성합창단의 특송으로 꾸며졌다. 이어 시작된 한사랑축제는 김덕순 회장의 성탄 인사로 포문을 열었다. 전회장단과 이사들이 함께 예수 탄생을 주제로 특별공연을 선보였고 김시옥 대표(밝은미래교육원)가 '수고했어, 올해도' 주제로 웃음이 넘치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꾸며다.

**진주YWCA** 윤인주 간사  
**청소년기후멘토링-기후, Why라노?**



12월 24일(토) 진주YWCA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후멘토링 행사가 열렸다. 지역의 마을학교 3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기후전문강사 3인과 함께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가져야할 가치관과 역량에 대해 토론, 질문, 연대놀이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 토론에 앞서 참여자들의 긴장을 풀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벽허물기(아이스브레이킹)시간을 가졌다. 기후 멘토와 함께하는 기후 토론회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기후위기', '기후위기가 초래된 이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주제로 청소년들의 생각을 나누었다. 토론회 후 참여자들은 기후골든벨, 기후연대놀이로 함께하며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연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해YWCA** 이주현 인턴  
**아금바리 리폼 교실 작품 전시 및 판매**



(사)진해 YWCA는 12월 한 달간 진해 YWCA 어울림 합창단 연습실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작업한 아금바리 리폼 교실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를 진행하였다. 판매금액 전액은 지역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해마다 지급하고 있다. 업사이클링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아 헌 옷과 안 입는 청바지를 이용한 에코백이나 말 매트 등의 생활 소품 만들기, 헌 가구 리폼 교실, 폐현수막을 이용한 다양한 에코백 만들기 등을 8개월간 매주 진행한 결과물과 함께 자제 동아리인 정크아트교실 작품도 선보여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관심의 장을 열었다.

**(사)창원YWCA** 심진실 간사  
**제1회 (사)창원YWCA 정기총회**

(사)창원YWCA는 1월 26일(목), 제1회 사단법인 정기총회(창원YWCA 제34회)를 실시하였다. 회원 100명 가운데 위임 6명을 포함하여 총 55명이 출석하였으며, 총회에 앞서 예배와 어린이



집 교직원들의 우쿨렐레 식전 공연으로 분위기를 돋우었다. 이연자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총회는 문병화 회계감사의 2022년 감사보고를 비롯하여 2022년 결산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고, 2023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공천위원 후보 인준과 법인이사 소개 및 인사에 이어 회의록 채택과 회가 제창으로 총회를 폐회하였다. 30년간 봉사한 박말이 이사의 은퇴식이 따뜻한 격려 속에서 진행되었다.

**(사)통영YWCA** 변은실 과장  
**(사)통영YWCA 제1회(32회) 정기총회 개최**



(사)통영YWCA는 1월 17일(화) 오후 2시 제1회(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예배에 이어 지난 1년 간의 본부 및 부속기관의 사업을 보고하고 2023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알리고 2023년 한국YWCA 공통과제를 함께 나누었다. 총회사를 통해 원필숙 회장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체(體), 인(仁), 지(地) 즉, 강건한 신체, 어진 마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변화되는 사단법인 통영YWCA가 되어 행정과 활동 영역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젊은 기독 여성들의 시민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12월 5일(월) 포항오천시장에서 포항YWCA를 비롯해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소망의집 등과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



인은 시민들과 함께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및 젠더감수성에 대해 OX퀴즈를 풀며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과 관련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화, 내방, 방문상담 등을 통한 다양한 도움을 안내했으며, 지역민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출퇴근길이 안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전라·제주권역

광양YWCA 이효진 주임

### 광양YWCA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성탄 행사



12월 20일(화) 광양YWCA경로식당 무료급식소에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나눔은 행복입니다.” 문구와 함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성탄 행사가 열렸다. 광양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양증맞은 울동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과 동요를 불렀고, 정성껏 준비한 색종이 목걸이와 함께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장갑과 양말이 들어있는 선물꾸러미를 어르신들께 전달하여 합박웃음을 짓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온마을돌봄공동체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에서 과일 깍과 굴 5박스를 준비해주어 어르신들께 풍성한 한상차림이 되어 연말연시 따뜻한 정을 느

끼는 성탄 행사가 되었다.

(사)광주YWCA 서정현 국장

### (사)광주YWCA 합창단 제23회 정기연주회



(사)광주YWCA 창립 10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12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에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사)광주YWCA 합창단이 제23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이날 정기연주회에서는 김사도 지휘 아래 김순자 단장을 비롯한 57명의 단원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다. 연주곡은 모차르트의 ‘아베 인간으로 나신’ 외 8곡을 노래하였다. 합창단 외에 메조소프라노 신재희, 알토 가현주의 객원연주와 첼리슈필 앙상블 4명이 특별출연하여 풍성한 연주회가 되었다.

군산YWCA 황수미 간사

### 군산YWCA 회원무료특강



군산YWCA는 12월 2일(금) 오후 2시~4시까지 군산YWCA 대강의실에서 군산Y 회원 13명이 참석하여 ‘성탄 트리 만들기(한지공예)’ 회원무료특강 3차를 진행 하였다. 군산YWCA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이 함께 모여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성탄절을 앞두고 한지를 재료로 성탄트리 만들기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남원YWCA 임진아 간사

### 남원YWCA 제31회 정기총회



1월 17일(화) 남원YWCA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유정이 회장의 예배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조현식 목사(한빛교회)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2022년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보고 및 2023년 예산안 심의, 사업계획안 심의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신입이사 인준과 남원YWCA 법인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추진일정에 대한 내용을 의결하였다. 이어서 2부에서는 2022년 남원YWCA 활동 영상과 차세대 장학금 전달(Y-틴 회원), 남원YWCA의 30년사 집필에 힘써주신 노길희 집필자에게 감사장 및 기념선물 증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 (사)목포YWCA 회원활동 동아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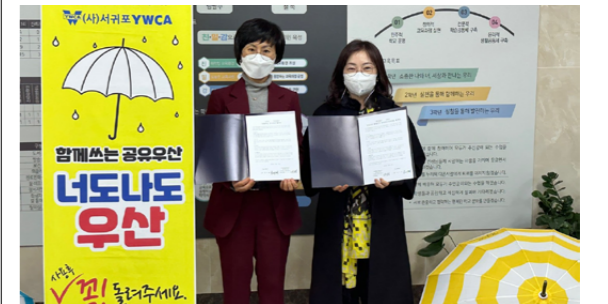


(사)목포YWCA는 YWCA운동정책 실행과 회원 간의 화합을 위한 동아리를 2022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YWCA 전국중점운동인 ‘탈핵기후생명’ 운동정책을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창설된 기후환경동아리 ‘Y잠지락’은 소창 원단을 활용한 물품제작, 친환경 수세미 제작 등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나누며 기후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운동으로 회복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창설한 ‘건강힐링동

아리’는 스트레칭, 줘바 등을 통해 회원들의 건강을 다지고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서귀포YWCA 김지희 팀장

### ‘너도나도 우산 함께쓰기’ 협약식 진행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공동대표 구만섭, 고맹수)는 효돈중학교(교장 송미혜)와 지난 12월 28일(수) ‘너도나도 우산 함께쓰기’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사회적경제활성화제주네트워크 이신선 운영위원장, 송미혜 교장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에 30개의 우산과 보관함을 설치해 비 오는 날 우산을 무료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 후 반납함으로써 함께 쓰는 공유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이 캠페인은 올해 제주도 내 3개 중학교에 비치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사)순천YWCA 신정은 간사

### (사)순천YWCA 아이돌보미 신년회



(사)순천YWCA에서는 1월 18일(수) 순천마리나컨벤션에서 (사)순천YWCA의 아이돌보미 신년회가 열렸다. 이번 신년회에서는 새해에 바뀌게 된 사업 설명과 더불어 그동안의 사업성과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또한 공적이 인정되는 아이돌보미들에게

시상과 표창을 하였다. 아이돌봄지원사업 허다순 팀장의 색소폰 연주와 서형옥 아이돌보미의 특별 공연까지 더해 즐거운 분위기를 더하였다.

(사)여수YWCA 김예랑 간사  
(사)여수YWCA 제40회 총회 개최



(사)여수YWCA는 1월 25일(수) 오후 2시 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0회(사단법인 2회) 총회를 개최했다. 개최에배(여천교회, 정 훈 목사)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봉사상·회원증모 우수자 및 근속 직원에 대한 시상 이어졌다. 이후, 2021년 사업 보고·2022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와 임원·공천위원·신입이사(1명) 및 회장 인준 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또한 (사)여수YWCA에서 2023년을 맞아 '기후야 내가 변할게'라는 슬로건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월별 실천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YWCA 강지수 간사  
익산YWCA 회원의 날



12월 20일(화) 익산YWCA에서 회원의 날로 '캘리그래피 양초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자원활동가 황진희 이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된 캘리그래피 양초 만들기는 양초에 물펜으로 성경말씀 글귀를 적어 넣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말씀 가운데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모인 회원들이 함께 양초를 만들며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전주YWCA 최은주 간사  
'도전! Young 시니어' 청소년에게 배우는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프로그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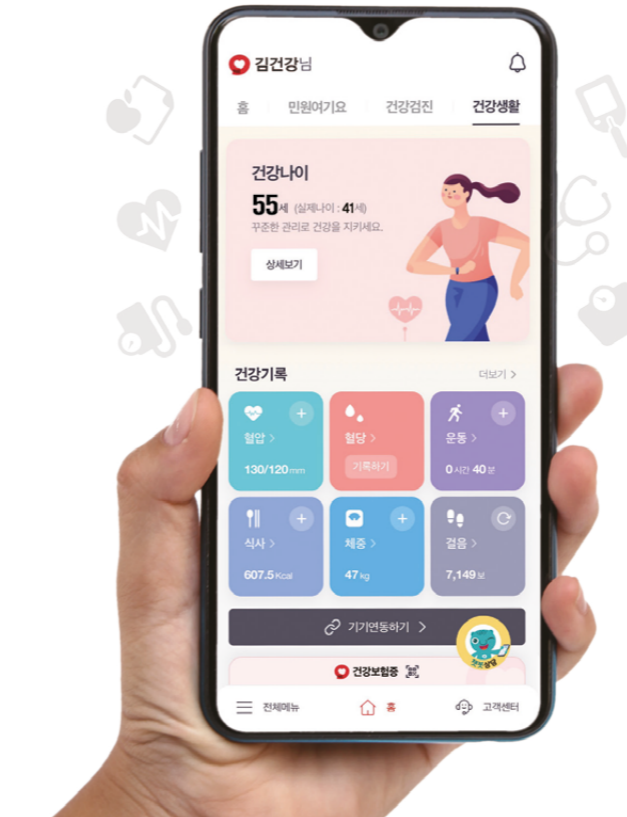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YWCA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청년 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교육사업'에 (사)전주YWCA가 참여하여 2022년 신규 사업을 진행하였다. 12월 10일(토) 진행된 <도전! YOUNG 시니어> 프로그램은 전주금암교회 장년, 고령자 4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및 디지털 범죄예방 앱, 키오스크 기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세대에게 문화적 격차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별히 디지털 디바이스 전문 강사 교육을 수료한 청년 강사와 중, 고등학교 청소년 봉사자가 교육을 직접 이끌고 진행함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이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사)제주YWCA 추현우 간사  
(사)제주YWCA, 법인 및 부속시설 시설장 해의 연수 진행



12월 19일(월)부터 12월 22일(목)까지 3박 4일 동안 (사)제주YWCA 법인 및 부속시설 시설장 연수가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는 2022년에 진행된 사업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내년도 사업 계획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으로 일본 오사카 일대에서 사무총장,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어린이집 원장, 통합상담소 소장, 여성쉼터 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별히 참석자 일동은 20여 년을 자원활동가로 함께하다가 2022년을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하는 여성쉼터 임예경 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 국가검진결과와 확인하고 스마트한 대사증후군 관리!



+ 혈압, 혈당 등 직접 기록 후 결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가건강관리 '나의건강기록' 서비스도  
제공해 드려요.



+ 국가건강검진 결과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와  
건강UP메세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대사증후군? 체내의 대사 + 증후군  
대사와 관련된 질환이 함께 동반된다는 의미

방치하면 위험하지만 체계적으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 허리둘레 줄이GO
- 중성지방 줄이GO
- 혈압 낮추GO
- 좋은 콜레스테롤 늘리GO
- 혈당 내리GO

+ 'The건강보험' 설치 및 실행방법

-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 접속 후 'The건강보험' 앱 검색 ▶ 설치 ▶ 실행
- 2 'The건강보험' 에 로그인하기
- 3 대사증후군 건강관리(24주) 접속 경로  
전체메뉴 ▶ 건강IN ▶ 대사증후군 건강관리(24주)  
▶ 서비스안내 ▶ 사전가입정보 및 설문작성 완료
- 4 대사증후군 건강관리(24주) 서비스 시작하기



문의: 1577-1000